

월간 가든인 4월호

April 2016

Gardenin

특집
기사

효과적인 식물생태학적 혼합이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한다

GARDENIN LIFE
4
VOL. 36

Gardenin Maintenance

정원사의 일기 - 관상정원, 텃밭정원
가든엔씨앗 - 알맞은 파종방법, 라벨, 나팔꽃



Gardenin Plants

관목시대 - 목단
서분, 정원식물 나들이 - 휴게라



Gardenin Culture

정원속의 식용꽃 - 식용꽃 키우기, 팬지
힐링원예 - 봄을 부르는 나만의 화단 만들기



Gardenin Design

정원으로의 여행 - 예술가와 함께 하는 정원
실내정원의 크래프트 - PET병을 활용한 수경재배



무늬별꽃나눔
(Weigela)

ISSN 2288-1719



9 772288 171000

10,000원

Gardenin Information

GARDEN & BOOK /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52주, 작가들의 정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기업'

종자 종묘 대표기업

물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많지만, 같은 가격으로
물품, 기술, 노하우를 함께 판매하는 기업은
CZ 입니다.

종자	꽃묘	프러그	구근	조경용 수목
일반초화 종자 다년생초화 종자 야생화 종자 채소 종자 등	일반초화 꽃묘 다년생초화 꽃묘 야생화 꽃묘 등	일반초화 프러그 다년생초화 프러그 야생화 프러그 삽수 프러그 등	춘식구근 추식구근 등	연산홍 자산홍 남천 등



대표전화 031-444-1488
 팩스 031-444-1477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67 3층
 홈페이지 www.czcorp.co.kr / 쇼핑몰 www.czmart.co.kr

CONTENTS

4 이달의 포커스 - 꽃잔디 정원

Gardenin Maintenance

- 6 정원의사 일기 - 관상정원, 텃밭정원
- 10 가든엔씨앗 - 알맞은 파종방법, 라벨, 나팔꽃
- 14 생활 속의 도시농업 - 4월 식물관리

Gardenin Plant

- 18 산타벨라가 들려주는 화초이야기 - 아름다운 향기를 가진 초록이
- 22 정원 속 보이네 - 딸기, 푸리지아, 패모, 천인국
- 26 Special Issue - 허브식물을 이용한 그 무엇
- 32 관목시대 - 목단
- 34 이명호의 야생화 - 진달래
- 38 테마가 있는 식물이야기 - 붉은잎동자꽃, 화롱물사초, 비단너도부추, 무늬새, 펜넬, 레몬버베나
- 42 정원화로 좋은 우리야생화 - 앵초
- 44 서봄, 정원식물 나들이 - 휴게라

Gardenin Culture

- 46 특집 - 2016년 IPM스토리 연재 ②
- 48 오경아의 속초 정원 이야기 - 봄이 오는 시간
- 52 정원과 아이들 - 정원식물에 대한 기초정보를 전달해라
- 54 정원의식용 꽃 - 식용 꽃 키우기, 팬지
- 56 식물원 탐방 - 원주허브팜
- 60 정원을 꿈꾸는 사람들 - 들꽃의 향기가 머무는 들
- 64 힐링원에 - 봄을 부르는 너만의 화단 만들기

Gardenin Design

- 66 정원다이어리 - 암석가든의 명소, 라데나 골프 클럽
- 68 칼럼 -
효과적인 식물생태학적 혼합이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한다.
- 70 정원으로의 여행 - 예술가와 함께 하는 정원
- 72 실내정원의 크래프트 - PET병을 활용한 수경재배
- 74 COLOR IN THE GARDEN - Purple Flowers

Gardenin Information

- 78 정원식물 따라잡기 - 다년생 식물
- 80 가든인 생생정보
- 81 GARDEN & BOOK -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52주, 작가들의 정원



Gardenin
 Gardenin 월간 4월호

꽃잔디 정원

꽃잔디의 계절이 찾아왔다.
여기저기 꽃잔디는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 정원식물이다. 대면적에 조성하기도 하고, 정원의 앞 라인쪽에 봄식물로 빠질 수 없는 소재이다. 그리고 작은 식육메지용으로도 좋다.
이제는 한가지 색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색상의 꽃잔디품종으로 조성하는 것이 정관적 효과를 배가시킬수 있다. 특히 봄에 꽃잔디처럼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정원식물은 흔치 않다. 그래서 이른 봄에 임팩트를 주어야 하는 축제나 행사를 위해서는 꽃잔디가 최고의 소재임은 이미 증명되어있다.



국내 가볼만한 꽃잔디정원으로는 산청 생초국제조각공원에 조성된 꽃잔디정원이 대표적이다. 다양한 색상의 꽃잔디로 디자인되어 4월중순부터 아름다운 꽃잔디물결의 장관이 펼쳐진다.

생초국제조각공원
경남 산청군 생초면 어서리 772번지

정원사의 일기

(Gardener's Diary)

가드너 김시용

전 천리포수목원 근무

영국 The Sir Harold Hillier Garden 연수

영국 RHS Garden, Wisley Diploma in Practical Horticulture Programme 졸업



M 'Caerhays Belle'

관상정원

4월이 되면 떠오르는 식물하면 무엇이 있을까? 많이 있지만 4월에 목련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목련은 목련과 함박꽃나무 이지만 전 세계에는 125여 종(species)이 히말라야, 아시아, 남북아메리카에 분포한다.



M 'campbellii' 'Darjeeling'

목련은 키가 작은 나무나 키 큰 나무들로 숲잔모양이나 별모양의 꽃을 봄에서 초여름에 걸쳐 핀다. 상록의 잎을 가진 목련들은 독립수나 벽에 유인해서 키울 수도 있다. 목련은 보통명이고 속명은 *Magnolia*(프랑스인으로 식물원 원장, 식물학 교수를 기념하는 이름)

목련의 식재 : 봄과 가을에 양지 바른 곳 또는 반음지 또는 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 식재한다. 추위에 잘 견디지만 백목련은 서리에 꽃눈이 다 칠 수 있다.

목련의 재배 : 낙엽 지는 목련은 보통 봄에 잎보다 먼저 꽃이 피고 상록 목련들은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꽃이 핀다. 꽃이 핀 다음에는 목련의 열매(굴뚝)에서 밝은 씨앗들이 종실의 끝에 달린다.

장소와 조건 : 적지는 양지 바른 곳에서 잘 자라고 꽃도 잘 핀다. 비옥하고 배수가 잘되는 토양에서는 잘 자라지만, 마르고 알카리성 토양에서는 잘 자라지 않는다. 마르고 알카리성 토양에서는 태산목 심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다.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는 목련, 큰별목련, 함박꽃나무, 별목련 등을 시도해 볼 수 있다. 토양이 습한 경우에는 태산목을 심을 수 있다. 여름에 꽃이 피고 낙엽 지는 함박꽃나무는 약간 그늘진 곳에 심을 수 있다. 북서풍을 막아주는 장소에는 같은 기온이라도 온도가 낮으므로 추위에 약한 상록의 태산목을 심을 수 있다. 봄 서리는 봄에 꽃에 피해를 주고 가을에는 상록 목련들의 잎에 피해를 준다.

전정 : 목련은 전정을 하지 않게 좋지만, 약한 가지, 죽은 가지, 수직으로 자란가지, 나무의 모양을 잡기 위해서는 전정을 할 필요가 있다.

전정의 시기는 한 여름이나 초가을에 한다.

상록의 목련은 가지의 길이를 짧게 하는 것 이외에는 전정을 할 필요가 없다. 나뭇가지의 피해를 많이 받았을 때는 강전정을 한다. 나무의 모양을 잡기 위해서 하는 전정은 단기간에 걸쳐 하는 것보다 여러 해에 걸쳐 하는 것이 좋다. 독립수는 봄에 전정을 하고 벽에 붙여서 유인하는 상록 목련의 경우에는 여름에 전정을 한다. 벽에 붙여 유인하는 목적은 온도를 15~20℃ 높여주는 미기후를 형성해서 꽃이 잘 피고 잘 자라게 하기 위함이다. 목련의 전정은 꽃이 피고 난 후에 바로 하는 것이 좋다.

번식 : 목련의 번식은 휘문(가지를 늘려 뜨려 땅에 묻는 방법)로 하는 것이 간단한 방법이다. 낙엽 지는 목련은 녹지삽목을 할 수 있다. 뿌리가 내리고 나서 겨울을 지난 다음에 땅이나 화분에 옮겨 심으면 된다.

상록의 목련은 반녹지삽목을 늦은 여름과 초가을에 할 수 있다. 씨앗으로 번식할 수 있으나 꽃이 피기까지 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목련의 열매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씨앗을 받을 수 있다. 수정이 잘 되지

않아서 대부분의 씨앗이 비림(발아되지 않음)인 경우도 많다. 씨앗을 받으면 주황이나 노랑의 껍질을 벗겨 내면 빛나는 검정색의 씨앗을 얻을 수 있다. 마른 씨앗은 발아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모래, 질석을 물에 적셔 비닐봉투에 씨앗을 넣고 냉장고에 2~4개월 저장해 두었다가 씨앗을 뿌린다. 발아가 되면 화분에 심어 2~3년을 키워 정식(이주심기)을 한다.

영국왕립원예협회에서 정원에 심는 것을 추천하는 목련 목록

H5 'Athene'	H6 'Lois'
H5 'Caerhays Belle'	H5 'Milky Way'
H5 'Caerhays Surprise'	H6 'Pegasus'
H4 'campbellii' 'Darjeeling'	H6 'salicifolia' 'Wada's Memory'
H6 'Daphne'	H5 'Sayonara'
H5 'David Clulow'	H6 'sieboldii' 'Colossus'
H6 'Daybreak'	H5 × 'soulangeana' 'Brazonii'
H6 'denudata'	H5 — 'Etienne Soulangue-Bodin'
H6 'Elizabeth'	H5 — 'Pickard's Schmetterling'
H6 'Galaxy'	H6 'Spectrum'
H6 'George Henry Kern'	H6 'sprangeri' var. 'diva' 'Burncoose'
H6 'Gold Star'	H6 — 'Copeland Court'
H5 'grandiflora' 'Kay Parris'	H6 — 'Eric Scovill'
H5 — 'Victoria'	H5 'Star Wars'
H5 'Heaven Scent'	H6 'stellata' 'Centennial'
H6 'liliflora' 'Nigra'	H6 — 'Jane Platt'
H6 × 'loebneri' 'Donna'	H6 — 'Royal Star'
H6 — 'Leonard Messel'	H6 'Susan'
H6 — 'Mag's Pirouette'	H5 'Sweetheart'
H6 — 'Merrill'	H6 'wilsonii'
H6 — 'Wildcat'	H6 'Yellow Lantern'

추위견딜성 H4: -10℃에서 -5℃ / H5: -15℃에서 -10℃ / H6: -20℃에서 -15℃



M 'Lois'



M 'Milky Way'



M 'grandiflora' 'Charles Dickens'



M 'loebneri' 'Leonard Messel'

Q and A

Q : 꽃이 피지 않는다.

목련은 꽃이 피기까지 오랜 시간(10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 빨리 보고 싶다면 적은 목련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태산목은 북서풍이 막아지는 따뜻한 곳에서 꽃을 잘 핀다.

Q : 꽃이나 꽃눈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다.

봄에 서리피해를 받았다. 이 경우는 백목련의 꽃봉오리와 꽃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백목련은 꽃이 일찍 피기 때문에 서리피해를 잘 받는다.

Q : 잎이 노랗다.

어린 잎에서는 자연스런 현상이나 다 자란 잎에서 발생하면 과도한 알카리성으로 인해 나타난다. 목련을 볼 만한 장소는 천리포수목원이다. 천리포수목원에서는 1997년에 세계목련학회가 열렸고, 세계에서 목련 수집이 잘 되어 있는 수목원 중에 하나이다.



Magnolia sieboldii



M 'salicifolia'



M 'x loebneri' 'Merrill'



M 'x soulangeana'



M 'x soulangeana' 'Amabilis'



M 'denudata'



M 'Elizabeth'



M 'Galaxy'



M 'kobus'



M 'stellata' 'Centennial'



M 'stellata'



Magnolia sprangeri var. diva

텃밭정원

4월이 되면 시작해야할 텃밭작물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우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땅콩, 상추, 옥수수를 소개합니다.

땅콩

많은 사람들이 땅콩은 이름에 '콩'이 들어가지만 콩의 종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엄연한 콩과 작물이다. 땅콩이 열리는 걸 보면 독특한데, 꽃이 지고 나면 그 꼬투리가 땅을 향해서 가고 땅속을 파고 들어가서 어느 정도 깊이에 들어가서야 땅콩이 열리기 시작한다. 이런 특징 때문에 붙은 이름이 낙화생(落花生)이다. 이 때문에 바깥에서 땅콩을 열리게 할 수 없어서 화분재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상추

잎을 뜯어 먹는 상추는 이미 BC 6세기에 페르시아에서 식용되었으며, 그리스·로마에 보급되어 유럽에 널리 퍼졌다. 5세기까지는 중국에도 전해졌으며 중국을 거쳐 한국에 전래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재래종 상추이다.

상추에 대한 기록이 처음 나타난 문헌은 고려시대 『향약구급방』이란 의서로 중국 원나라에 팔려갔던 고려 여인은 고향이 그리워 고려 상추씨를 심어 상추쌈을 즐겨 먹으며 향수를 달했다고 했다.

본래 상추는 중국에서 고려로 들어왔지만 맛은 고려 상추가 월등해서 그 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이후 고려 상추는 천금채(千金菜)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한다. 상추라는 말은 날로 먹을 수 있다는 생채(生彩)가 변화된 것이라고 한다.

상추는 다른 엽채류에 비해 무기질과 비타민의 함량이 높다. 특히 철분이 많아 혈액을 증가시키고 맑게 해 주는 보강식품으로 가치가 높다. 상추의 잎줄기에는 우유빛 즙액(later)이 들어 있는데 고온기에 많이 생성되며 쓴맛을 낸다. 이는 아편(Opium)과 같이 최면, 진통의 효과가 있어 상추를 많이 먹게 되면 졸리게 된다.

기르는 방법

과명 : 국화과 학명 : *Lactuca sativa L.* 영명 : *Lettuce*
한자명 : 萵苣(와거)

재배 달력			
파종	거두기	파종	거두기
5월 초	6월 초	9월 말	11월 말

상추는 고대 이집트에서 재배되었고, 우리가 주로 먹는 상추는 기원전 6세기에 페르시아에서 재배되었으며, 유럽에 널리 퍼졌다. 우리나라에는 중국을 통해 들어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씨앗은 땅에 구멍을 알개 파고 물을 주고 씨를 뿌린 다음 흙으로 살짝 덮어주면 된다. 씨앗을 뿌리는 간격은 25cm로 하고 줄 간격 또한 25cm정도로 하면 된다. 씨앗을 뿌린 후 2개월이 지나면 수확해서 먹을 수 있다. 여름의 높은 온도에는 꽃대가 바로 나와서 수확기간이 짧게 되므로 가을에 다시 뿌리는 것이 좋다.



씨앗파종



적치마상추



청상추

옥수수

옥수수는 페루와 멕시코 등 남아메리카에서 자라던 식물이다. 1492년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 1451~1506)가 종자를 에스파냐로 가지고 돌아간 후부터 30년 동안 전 유럽에 전파되었으며,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에 원(元)나라 군사에 의해서 전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에 따라 옥시기, 강냉이라고도 불리는 옥수수는 메마른 땅에서도 잘 자라 벼농사가 힘든 강원도에서 많이 재배되는 농작물이다. 경작할 때 많은 일손이 필요하지 않고 어떤 토양에서나 잘 자라며 한랭한 기후에도 잘 견딘다는 이점 때문에 널리 재배되고 있다.

옥수수는 세계 3대 곡물 중의 하나로 전 세계 재배 면적으로 보면 밀, 벼 다음으로 넓은 면적에 재배되고 있는 작물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옥수수를 생산하고 또 가장 많은 옥수수를 수출하는 나라이다. 우리나라는 곡류 중 쌀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고, 옥수수는 0.8% 정도를 생산하고 나머지는 모두 수입하고 있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옥수수의 양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

우리나라의 주식은 옥수수가 아니다. 그렇다면 수입된 옥수수는 어디에 쓰이는 걸까? 1970년대 화학비료 사용과 GMO작물 등으로 세계 곡물이 남아돌던 시절, 옥수수 생산량이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나자 옥수수를 동물 사료로 이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옥수수 사료를 먹은 가축은 살이 잘 붙고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낮은 비용으로 고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수입하는 옥수수 대부분이 가축 사료로 사용되고 있다.

옥수수에서 녹말 성분을 추출해낸 옥수수 전분은 각종 당류의 기본 물

질이다. 맥주, 술, 탄산음료, 피자, 캐러멜, 껌, 아이스크림, 햄, 식초, 치즈, 초콜릿, 사탕, 젤리, 잼, 땅콩버터, 케첩, 시리얼, 식빵, 팬케이크, 과자 등등 옥수수 없는 가공식품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옥수수는 광범위하게 우리 생활에 자리하고 있다. 옥수수는 심지어 석유 고갈을 대비하기 위한 대체에너지(바이오 에탄올 등)의 주요한 소재로 사용 개발되고 있다.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기 때문에 친환경 플라스틱이라 불리는 바이오 플라스틱 또한 옥수수를 원료로 만들어진다. 환경호르몬 등 독성 물질이 없는 식물성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유아용 식기, 도마, 주방용품 등 생활용품 분야에서 활용도가 커지고 있다.

기르는 방법

과명 : 벼과 학명 : *Zea mays L.* 영명 : *Corn, Maize*
한자명 : 粟(도 옥수수)

재배 달력		
파종	자라는 시기	거두기
4월 말	5월 말 ~ 7월 중순	7월 말

옥수수의 원산지는 남아메리카이다. 옥수수는 직접 땅에 심거나 모종을 내서 심을 수 있다. 서리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4월부터 땅에 뿌리고 5월 말부터는 자라기 시작해서 3개월 정도 자라면 수확해서 먹을 수 있다. 씨앗을 뿌릴 때는 한 구덩이에 3~4알씩 넣고 사방 30cm간격으로 줄은 최소한 2줄, 3줄이 가장 적당하다. 그 이유는 옥수수는 타가식물 즉, 다른 옥수수의 수술가루가 암술머리에 달라서 수정이 되기 때문이다. 옥수수 수염이 짙은 갈색으로 바뀌면 먹을 수 있다.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수확하자마자 바로 찌서 먹는 것이 좋다. 하루 정도 지난 뒤 먹으면 맛이 떨어지게 된다. 가을 까지 먹고 싶고 공간이 충분하다면 보름 간격으로 6월 초까지 씨앗을 뿌리면 된다.



옥수수를 4줄로 심은 사례



잘 익아가는 옥수수

가든엔 씨앗

가정에서 식물을 키우는 방법으로는 씨앗을 구매하여 파종해서 기르는 방법과 묘종을 직접 사와서 화분이나 정원에 식재를 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특히 씨앗으로 파종해서 식물을 재배하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초보 자들은 막상해보면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신설된 '가든엔씨앗' 코너에서는 씨앗의 발아, 파종방법, 보관 등 일반적인 씨앗부리기에 관한 내용들과 씨앗으로 재배가 가능한 꽃들을 매월 1품목씩 묶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글 사진 편집실 그림 박미영

1. 알맞은 파종 방법

실내에서 파종상자에 파종할 때

실내에서 파종상자에 파종을 할 경우에는 씨앗을 너무 깊이 파종하지 않도록 한다. 적당한 깊이로 심기 위해서는 씨앗 포장지에 있는 설명을 참고하거나 씨앗 지름보다 약 1cm 정도 더 깊이 구멍을 만든다. 구멍들을 바르게 파종하기 위해 직선 자를 이용할 수 도 있다. 고랑을 주는 것은 작은 씨앗들을 위한 좋은 방법이다. 고랑을 파기 위해서는 연필이나 자의 끝으로 만들 수 있는데 혼합토양에 살짝 줄을 표시해 놓는다. 줄 사이 간격을 최소 약 3cm정도로 맞춰서 묘종이 자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두어야 한다. 편리한 방법으로는 일정하게 파종할 수 있도록 간격이 나누어져 있는 트레이를 이용해서 파종하면 더욱 쉽게 파종할 수 있다.



성공적인 파종을 위한 방법

작은 씨앗들은 파종이 좀 더 어려울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하면 효과적이다.

- ▶ 씨앗 포장을 고랑 위에서 쥐고 주의해서 집게손가락을 이용해서 포장 위쪽을 살짝 두드린다.
- ▶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한 줄의 씨를 쥐고 고랑위에서 부드럽게 돌린다.
- ▶ 크기가 아주 작은 씨앗들을 부리기 위해 소금 부리개를 이용 할 수 있는데 소금 부리개는 깨끗하고 물기가 없고 씨를 부리기 전에 잔여 소금이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 ▶ 작은 씨앗을 소량의 모래나 흙과 섞은 다음 고랑을 따라서 뿌린다.
- ▶ 큰 씨앗들은 집게를 사용해서 가지런하게 배열한다.

GardenIn TIP

씨앗들의 발아율이 낮은 경우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조밀하게 파종을 하지 않도록 한다. 너무 많은 씨앗을 파종하게 되면 묘종이 너무 뻥뻥하게 들어서게 되고 결국엔 많은 묘종을 솎아내야 한다. 적당한 깊이에 파종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포장지에 있는 파종간격에 관련된 지시내용을 따르거나 다음과 같이 파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간격

- ▶ 작은 씨앗들은 0.3cm이상 간격으로 파종한다.
- ▶ 중간크기의 씨들은 1cm이상 간격으로 파종한다.
- ▶ 큰 씨앗들은 3cm이상 간격으로 파종한다.

깊이

- ▶ 토양의 표면에 매우 작은 씨앗들을 심거나 0.2cm 정도 깊이로 파종한다.
- ▶ 중간 크기의 씨앗들은 0.5~1cm 정도 깊이로 파종한다.
- ▶ 큰 씨앗들은 2cm~5cm 깊이로 파종한다.

2. 라벨

여러가지 씨앗을 파종하고 이름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몇 주가 지나서 새싹이 난 후에 확인하게 되면 어디에 어떤 씨앗을 파종했는지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항상 파종후에 적절한 장소에 표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특정한 식물의 몇몇 종들을 키우는 경우라면 그것들을 보리시킬 필요가 있다.

플라스틱이나 나무로 된 막대기에 이름을 붙이거나 지워지지 않게 글씨를 적어놓는 것이 좋다. 아채를 수확한 후에, 말뚝을 빼내 실내에 두었다가 다음해에 재사용한다.



▶ 라벨링(Labeling)을 하는데 많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아이스크림 막대기, 얇은 알루미늄 조각이나 비닐 조각, 모든 종류의 플라스틱 용기를 긴 조각으로 자른 것 까지 사용할 수있다. 그리고 간단한 플라스틱 형태로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라벨을 이용해도 좋다.



▶ 편이나 용기 옆에 붙일 수 있는 집착 종이를 이용할 수 있고 원예용품점에서 판매하는 플라스틱 라벨에는 물에 쉽게 지워지지 않거나 야외에서 희미해지지 않는 펜을 쓰도록 한다.

GardenIn TIP

라벨은 정원사들의 기억과 같은 역할을 한다. 라벨은 정원에 뭐가 어디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를 알려준다.

- ▶ 라벨을 병해충 예찰 정보와 함께 표기한다. 나무로 된 라벨을 노랑 계 색칠한다. 한쪽 면은 식물 라벨로 사용하고, 다른 쪽은 바셀린을 발라 놓는다. 해충이 올라오거나 미끄러운 표면에 날라 올 경우, 막대기에 붙게 되고 해당 되는 식물을 괴롭히는 해충이 무엇인지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 있게 해준다.

- ▶ 식물에 라벨을 만들 때 라벨을 앞면에는 식물의 이름과 품종을 적는다. 뒷면에는 파종, 꽃이 핀 시기, 수확한 시기와 같은 중요한 시기에

대해 기록해 놓는다. 시즌이 끝나갈 때에는 라벨을 모아서 가든 수첩에 정보를 적는다.

- ▶ 실내 식물을 위한 미적인 라벨은 얇은 점토 화분의 조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날카로운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사포를 밀어서 부드러운 부분에 끝이 얇은 펜으로 식물의 이름을 적는다.

- ▶ 흰색의 작은 플라스틱 라벨은 실내에서 파종하는 씨앗들의 묘종판에 많이 쓰인다. 그것들은 또한 화분으로 옮겨심기를 할 때 묘목 옮겨심기를 위한 훌륭한 도구가 된다.

- ▶ 라벨을 다시 쓰기 전에 깨끗한 용액으로 (물 4 : 표백제 1) 소독을 한다. 깨끗이 행구고 난 다음 재사용 가능하다.

3. 나팔꽃 (Morning Glory)

나팔꽃은 곤충에 의한 타가수분 식물이다. 씨앗의 저장을 위해 특정 계통의 순수성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한 번에 하나의 품종만 심는다. 타가수분이 일어난다면, 겹꽃이 유전적으로 홑꽃보다 우성이지만 꽃의 색깔은 예측이 힘들다.



포트에 직접 파종한 뒤 발아되어 씨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 ▶



나팔꽃씨앗

GardenIn TIP

1. 나팔꽃 씨앗의 발아는 불규칙적이다.
2. 나팔꽃은 동그란 씨방에 그들의 씨를 맺는다. 이 씨방이 건조할 경우 씨는 수확할 준비가 된 것이다.
3. 수확할 때 열려진 둥근 씨방을 깨고 씨앗을 꺼낸다. 저장하기 1,2주전에 펼쳐서 말린다.

나팔꽃 씨앗 정보

- 발아를 위한 최적 온도 : 22~28도
- 최적온도에서 발아 시기 : 파종 후 5일~20일
- 식재간격 : 20~40cm
- 파종깊이 : 0.5cm
- 씨앗 저장 조건 : 서늘하고 어둡고 건조한 곳

실내 파종

1. 나팔꽃은 실내에서 포트에서 재배하여 야외에 이식하면 좋다. 야외에 심기 4~6주전에 실내에서 파종을 하면 된다. 종피는 매우 딱딱하기 때문에 줄을 가지고 씨에 흠집을 낸 다음 파종 전 밤 동안 물에 담가 둔다.



2. 각 화분에 3~4개의 씨를 파종하고 마지막 서리가 지난 3,4주후에 7도 이상으로 유지되면 야외에 묘종을 옮겨 심는다.



실외 파종

나팔꽃은 보통 마지막 봄 서리 1,2주 후에 토양이 따뜻하면 바로 야외에서 파종이 가능하다. 나팔꽃은 옮겨심기는 것을 좋아하는 식물이 아니어서 계속 있을 수 있는 곳에 파종한다. 어떻게 딱딱한 종피를 부수는지 혹은 미리 썩 트는 씨에 대한 내용은 실내 파종 내용을 참고 한다.



우리에게 친숙한 덩굴식물

나팔꽃 벌시리즈

새로운 나팔꽃을
가정에서 키워보세요!



구입문의
우리꽃연구소 031.634. 0328

GardenIn TIP

씨앗을 젖은 타월에 말아서 밀봉된 비닐봉지에 넣어 따뜻한 장소에 두면 미리 썩이 나게 할 수 있다. 씨가 발아할 때 트레이에 심거나 각각의 화분에 심는다.

4월 식물 관리

생활속의 도시농업

글 사진 정미나 건국대학교 이학박사
정원미화나농회 (사)도시농업포럼 교육, 출판부위원
한국의 정원 식물-초본류, 텃밭정원활용북 101 저자

드디어 봄이 와 본격적으로 식물을 가꿀 수 있는 계절이 왔다. 땅이 해갈되고 심을 준비가 되면 종자로 심을 것인지 모종으로 심을 것인지 계획하고 규모와 양을 정해야 한다. 보통 4월 말에는 엽채소 위주로 모종을 심고 5월 말에 과채소 위주로 모종을 심어야 한다. 보통 과채소는 원산지가 열대식물로 고온을 요구하는 식물들이 많아서 또한 늦서리가 4월 중하순에 있어서 주간 일기 예보를 보고 엽채소는 평균 온도가 10℃, 과채소는 15℃ 유지 될 때 모종을 심는 것이 안전하다. 종자는 채소류, 화훼류 등 목적을 구분해서 심어야 관리하기 용이하다.

모종심기

본 잎이 4~6개 정도 있고 뿌리가 잘 자라고 잎의 색이 짙고 줄기의 마디와 마디 사이가 짧은 것을 구매한다. 묵은 잎은 제거 한 뒤에 식재한다. 모종 심기 전날 땅에 물을 주어 물이 흡수하도록 한 뒤에 먼저 땅을 파고 물을 넣은 뒤에 물이 흠에 잘 흡수 된 후 식물을 넣고 흠을 덮는데 뿌리가 보이지 않도록 하고 지표 부분에 흠이 너무 덮어서는 안 된다. 심고 난 뒤 전체적으로 물을 주는 데 이량이 넘치도록 물을 준다.

》2014년 04월 고덕동 공동체텃밭 모습

4월 13일 모종심은 후 1주일후 활착된 모습



적치마 상추



아삭이 상추



치커리



딸기



쑥갓



적근대



들깨



청상추



초식잠



개동쑥



참취



케일



비트



왜담귀



모종을 심은 뒤에 물을 준 모습



물을 준 뒤 10분 뒤에 마른 부분에 물을 더 물을 준다.



감자 2014년 4월 18일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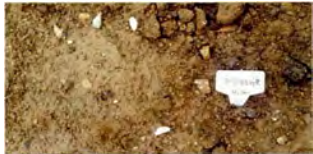
감자 2014년 4월 22일 모습

파종으로 심기

4월 12일 허브 및 화훼류 종자를 산파 및 점파로 파종 후 라벨에 심은 식물 이름과 날짜를 적는다.



고려엉겅퀴(곤드레나물) 파종 모습



저먼캐모마일 파종 모습



봉선화 파종 모습



맨드라미 파종 모습

4월 19일 채소 종자들을 산파 및 점파로 파종 후 라벨에 심은 식물 이름과 날짜를 적는다.



생채 파종모습



당근 파종모습



로메인상추 파종모습



적신기주 상추 파종모습



쑥갓 파종모습



청경채 파종모습



얼무 파종모습



적로메인 파종모습

파종 후 5일이 지난
2014년 4월 18일
고덕동 공동체 텃밭모습



배추 종자를 출파로 줄을 맞춰 종자를 뿌린 후 흙을 덮은 후 관수한다. 5일 정도 지나면 발아한다.



쑥갓 종자를 출파로 줄을 맞춰 종자를 뿌린 후 흙을 덮은 후 관수한다. 5일 정도 지나면 발아한다.

4월 옥상 텃밭 모습



팔계종 옥상 분갈이 모습



계란케이스를 이용한 모습



나무통을 이용한 모습1



나무통을 이용한 모습2



고무통, 화분, 스티로폼을 이용모습



스티로폼을 이용한 말기재배

페트병 재활용 이용한 심지 화분 만들기



재료: 페트병, 칼, 라놀러스, 테이프, 못 쓰는 수건, 물



페트병을 반으로 자른 뒤 테이프로 마감한다.



무릎을 꿇고 못 쓰는 수건을 연결한다.



페트병 윗부분을 연결하면 심지 부분이 된다.



윗부분 페트병을 거꾸로 놓고 흙을 넣고 라놀러스를 심는다. 밑 부분에 심지에 물이 될 정도로 물을 채운다. 윗부분과 아래 부분을 합친다.



라벨에 이름과 심은 날짜와 원하는 배제지를 적는다.

산타벨라가 들려주는 화초이야기

아름다운 향기를 가진 초록이



이번 주인공은 '외국 인테리어 사진에 단골 소품으로 등장하는 초록 식물'입니다. 잡지나 인터넷에서 자주 만나는 녀석들이지요. 포토제닉한 초록이들을 만나보실까요?

글/사진 성금미 네이버 파워블로거

[저자 : 산타벨라처럼 쉽게 화초키우기] <http://blog.naver.com/santabella>



'빅스 플랜트' (Plectranthus 'Vicks Plant')

눈으로 만져지는 느낌이 포근포근하지요?
온몸에 뒤덮인 솜털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잎의 생김새가 장미를 닮아 '장미 허브'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진 초록친구.
향기를 맡아보면 허브인가 싶기도 하고 도통한 잎의 모양새나 만져본 느낌으로는 다육식물인가 싶기도 하지요. 하지만 허브도 다육식물도 아닌 '플렉트란서스(Plectranthus)' 종류라고 하네요.
휴우 ~ 이름 한번 디게 어렵구남 ~~~ ::
이 녀석의 잎에서 풍기는 냄새를 어떤 이는 장미향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과향이라고도 하고. 장미향이든 사과향이든 그 향기가 아주 좋다는 말임에는 틀림없다는 말씀.



잘 자란 이 녀석 좀 보세요. 복슬복슬 귀여운 감이지 않지요?
조금 떨어져서 보면, 잔잔한 솜털 때문에 반지르르~~한 윤기가 흘러 유명 디자이너가 만든 고급 패브릭 같아요.



잘 키우려면

1. 햇빛 : 직사광선에 가까운 밝은 빛이 가장 좋아요. 실내에서 기른다면 집안의 제일 밝은 곳에 두세요.
2. 물주기 : 화분의 흙이 바짝 말랐을 때 흠뻑 주세요. 특히 장미철에는 흙이 풀풀 날릴 정도로 말랐을 때 물을 주세요.
3. 번식 방법 : 삽목(꺾꽂이) 너무너무 잘 돼요. 줄기를 잘라 흙에 꽂기만 하면 성공 ~



'애플사이다 제라늄' (Apple Cider geranium)

흔히 '제라늄'이라고 하면, 특유의 강한 냄새를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은 제라늄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고 그 향기 또한 천차만별이지요. 혹시 이 '애플사이다 제라늄'을 만나 본 적이 있나요?
하트모양의 귀여운 모습을 한 잎에서 얼마나 시원하면서도 사랑스러운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지 아세요? 이름 그대로 사과향을 첨가한 사이다 냄새라고 해야 맞을까요?



연중 작고 앙증맞은 하얀꽃을 보여주는 초록이.
가장 풍성한 꽃을 피우는 봄에는 신부의 부케로 써도 될만큼 많은 꽃이 화사하게 피어나지요. 작은 흔들림에도 아롱아롱~~ 꽃잎이 우수수 ~ 떨어져 내릴 때면 빗자루로 쓸어내야 할 정도예요.



나는 정말 우리집의 베란다 정원에 이 녀석이 살지 않는다는 건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답니다. 흙 묻은 손으로 베란대를 분주히 왔다갔다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맛자락에 슬쩍 묻어 "엄마, 조금만 쉬었다 하세요 ~."하는 향기로 나의 바쁜 손놀림을 잠시 멈추게 만들지요. 그러면 나는 향긋한 행복감에 젖어 활짝 웃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잘 키우려면

1. 햇빛 : 밝은 빛을 좋아해요.
2. 물주기 : 화분의 겉흙이 말랐을 때 흠뻑 주세요.
3. 쉬운 번식 방법 : 번식이 아주 빠른 편이에요. 포기나누기로 하세요.



'골드 크레스트 윌마' (Goldcrest Wilma)
골드 크레스트 윌마를 보고 있으면 아무리 몸집이 작은 녀석일지라도 한 그루의 멋진 나무가 생각나지요.



아름답게 자란 이 녀석을 두 손으로 쓰다듬어 보세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쓸어 올리다 보면 으음 ~~~ 정말 상쾌해 ~~~ 상상한 레몬즙을 섞어 만든 향기 좋은 비누가 생각납니다.



잘 키우려면

1. 햇빛 : 직사광선이나 그에 가까운 밝은 빛을 좋아해요. 햇빛을 많이 받고 자란 건강한 골드 크레스트 윌마는 만졌을 때 잎이 다소 딱딱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햇빛이 모자라면 잎이 힘을 잃고 부들부들해지면서 형태가 흐트러지고 특유의 아름다운 색상도 사라져버려요.
2. 물주기 : 화분의 겉흙이 말랐을 때 흠뻑 주세요. 비교적 물에 민감한 편이니까 이 원칙을 꼭, 제 때 지키세요.
3. 번식 방법 : 당신이 고수라면 삽목(꺾꽂이)으로 하세요. 뿌리촉진제(=발근제)를 쓰면 성공률 UP! 하지만 자신이 없다면, 꽃집에 가서 하나 더 사주세요. 삽목이 어려운 편이라서 정신건강을 위해 그게 더 낫습니다.

키가 큰 골드 크레스트 윌마도 근사하지만 어린 녀석을 데려다가 키워나가는 재미를 꼭 느껴보시길 바래요. 그 어떤 실내화초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한 감동을 주는 녀석이니깐요. 오랫동안 함께 살다보면 어느새 어린이가 키만큼 자라고 또 어느새 내 키를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자라고 크게 자란 녀석을 품에 가득 안아보면 향기 때문에 코만 즐거운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벅찬 기쁨으로 일렁이지요. 그렇게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키우다보면 집안에 가득 퍼지는 그 향기,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으세요?



우리꽃연구소
URISEED LAB
전화. 031.634.7990

멜로버 초콜릿 행복
향백과 향운을 동시에 드립니다

하늘국화 금방식
금나와라 목백
금방식을 드립니다

2016년, 정원을 위해 계획하고 계신가요?
우리꽃에 문의 하십시오.

이젠 우리 정원에 맞는 신상품입니다.

"장기개화용" 봄부터 가을까지
쭉~~쭉니다!! 비료만 듬뿍!!

코레우리 우리드림시리즈, 하디시리즈, 골든볼시리즈, 링시리즈, 텀버시리즈
아니 열~수, 열~수, 이럴 수 있는거야?
5월에서 11월까지 숨도 쉬지 않고 피워대는 꽃구름 꽃향기



에키네시아 레인보우
천상의 화색 5월부터 11월까지
어찌 그리 고울까요?



상록잔디패랭이
4월에서 11월까지 끝내준다.
순천정원박람회 바로 그 주인공



하늘국화
블루, 하양, 큰꽃, 애기별하늘국화
꽃방식, 말해 위해 봐야 알지
4월에서 11월까지 꽃방식인지
확인하면 바로



가우라
베이베레드, 베이비핑크, 베이비골든트리
나비가 날았을까? 잠자리가 앉았을까?
5월에서 11월을 날고 앉아 꽃피우는



정원의 아름다운 맛

딸기 속 (Genus Fragaria)

우리나라에는 실지 않지만 재배종으로 널리 심겨져 봄 최고의 열매채소로 각광 받는다. 다년생 포복경 줄기식물로 12 종의 속으로 유럽, 아시아, 북미 그리고 칠레의 온난한 지역의 넓은 삼림지, 산림의 가장자리, 풀이 우거진 곳에 있다. *Fragaria vesca*는 일반적으로 석회질 토양에서 발견된다. 잎은 3출엽이고 톱니 모양의 작은 잎이 있는 근생이다. 흰색, 간혹 분홍색인 꽃은 수많은 수술과 일반적으로 5개의 화판의 암술잎이 있으며, 2-5개의 꽃이 피는 취산 꽃차례에서 나오며 이들은 즙이 많은 딸기가 된다. 주로 식용, 다육성의 열매를 위해 기르며 몇 품종과 재배종은 혹독한 겨울에 나머지 잎들은 지표식물로 유용하다. 허브정원의 가장자리 장식용이나 상차, 화분, 혹은 절이용 화분에 기르며, 특히 딸기 탑을 만드는데 사용한다. 최근에는 꽃이 아주 아름답고 여름에도 달리는 품종이 많이 나와 정원에 적극적인 이용이 가능하겠다.

내한성은 매우 뛰어나 우리나라 전역에 재배가능 하다. 정원에 재배할 때는 2-3년에 한번씩 새로운 포기로 교체하는게 좋다. 주로 그해 나온 포복지의 새로운 개체를 9-10월에 심으면 다음해 봄 좋은 꽃과 함께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 재배는 비옥하고 축축한 토양에서 기르나 배수가 잘 되어야 하고 중성에서 알칼리 토양이 알맞다. 햇빛이 잘 드는 곳이 좋고 부분적으로 그늘에서도 잘자란다. *F. vesca*같은 딸기류는 알칼리 토양에서 자랄 수 있다. *F. pink panda*는 침입종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열매종은 *Fragaria x ananassa*로 재배종이 이에 속한다. 증식은 봄에 기온이 13~18℃일 때 파종을 하고 일반적인 재배종은 포복지를 삽목하거나 분리한다. 해충 및 질병은 달콤한 향기와 당분이 있어 비교적 별레가 많다. 주로 진딧물과 응애가 잎을 가해한다.



봄의 향기

프리지아 속 (Genus Freesia)

프리지아는 우리에게 친숙한 꽃이다. 주로 봄 시장에 꽃다발로 아주 사랑받는 식물이다. 구근식물로 다년생이며 6종 혹은 그 이상의 속으로 모래땅의 지중해에서부터 남아프리카의 암석으로 된 고원의 비탈길에까지 존재한다. 300종 이상의 재배종이 꽃꽂이 용으로 개발되고 있다. 줄기에서 가지가 나오고 휘어진 줄기의 끝부분에 숨겨진 채 달려 있는 향기로운 냄새와 아름다운 꽃이 여인네들을 설레게 한다. 크고 깔대기 모양의 밝은 색 꽃은 늦겨울과 초봄에 나온다. 잎은 좁은 칼모양에서 가느다란 창모양으로 길이 5-40cm로 밑부분의 포기에서 발달한다. 서리가 내리거나 동해가 우려되는 우리나라에서는 *fressia*를 온실이나 아파트 베란다에서 기른다. 냉처리 된 구근은 여름개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화분에서 다양한 품종들을 그림 형태로 기르면 매우 아름답다. 내한성은 주로 0도 이상에서 재배해야 한다.

재배는 제주나 남부지방에서 겨울 월동을 해주어도 재배가 어려우므로 온실이나 베란다 등에서 기른다. 온실에서 자갈을 넣고 물빠짐이 좋은 토양을 사용하고 햇빛을 가려주고 활착 될때까지 축축함을 유지시킨 다음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기르며 물은 충분히 준다. 온도는 13℃ 밑으로 유지한다. 꽃눈이 난 뒤에 주마다 영양분이 균형잡힌 액체 비료를 준다. 꽃이 핀 후, 건조해 질때까지 물을 점차적으로 줄여주며 늦여름이나 가을에 다시심기 위해서 알뿌리를 보관해 둔다. 여름개화를 위해서는 봄에 온실 밖에서는 적절히 비옥하고 햇빛이 들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8cm 깊이로 심어준다. 증식은 가을이나 겨울에 온도가 13-18℃일 때 파종을 한다. 가을에 작은 포기들은 버리고 정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구근을 수입해 사용한다.

해충 및 질병으로는 진딧물 혹은 응애피해와 후자리움에 의한 시들음병 등의 피해가 있다.





아름다운 종소리

패모 속(Genus *Fritillaria*)

패모는 우리에게는 약재로 많이 알려져 있다. 삼림지에서 넓은 초원, 높은 산비탈의 넓은 서식처를 지닌 다년생 구근식물이다. 100여 종의 속으로 남반구의 온대지역, 특히 지중해, 아시아의 남부와 서부, 북미의 서부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각각의 구근은 2개 혹은 그 이상의 비늘이 있고, 때때로 많은 주아를 갖고 있기도 하다.

앞은 주로 창형이거나 하나의 선형으로, 2개인 경우는 드물며, 넓은 기저엽과 몇 개의 호생, 대생, 운생의 줄기잎이 있다. 몇 개의 종은, 꽃 위에 2개나 3개의 총포가 있다. 봄과 초여름에 피는 꽃은 볼품없이 매달려 있고 단생하거나 총생해서이거나 우상화서이며 6개의 꽃잎이 있다. 꽃은 종모양, 통형 혹은 종중 모자이크식의 반침접시 모양이며, 눈에 잘 띄는 밑줄들을 밑의 화피조각에 가지고 있다. 열매는 꼬투리가 있고, 각이 있거나 날개가 있다. 돌로 된 정원에서 높은 모판이나 가정자리에 기르며, 재배의 필요성에 따라 삼림지의 정원에서 기른다. 5~15cm 높이의 작은 종들은 틀이나 고산식물 온실에서 구근의 보호가 필요하다.

냉해에 대한 완벽한 내한성을 지니고 있다.

재배는 손상되기 쉬운 구근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가을에 구 크기의 2~3배의 깊이로 심어준다. *F. imperialis*와 같은 크고 속이 비어있는 왕관모양의 구근은 배수가 잘 안되는 환경에서는 썩는 경향이 있다.

온실에서는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물빠짐이 좋은 토양에 심거나 화분에 심는다. 자라는 동안 물을 알맞게 주고, 휴면기에는 거의 건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재배의 참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구분이 된 그룹들의 다양한 재배방식이 요구된다. 3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상적이고 건조한 겨울과 여름의 대륙성 기후가 필요하다.

그룹 1. 가장 강하고 내성이 강한 종으로, 햇빛이 드는 가장자리나 돌로 된 화단에 적합하다. 비옥하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과 충분한 햇빛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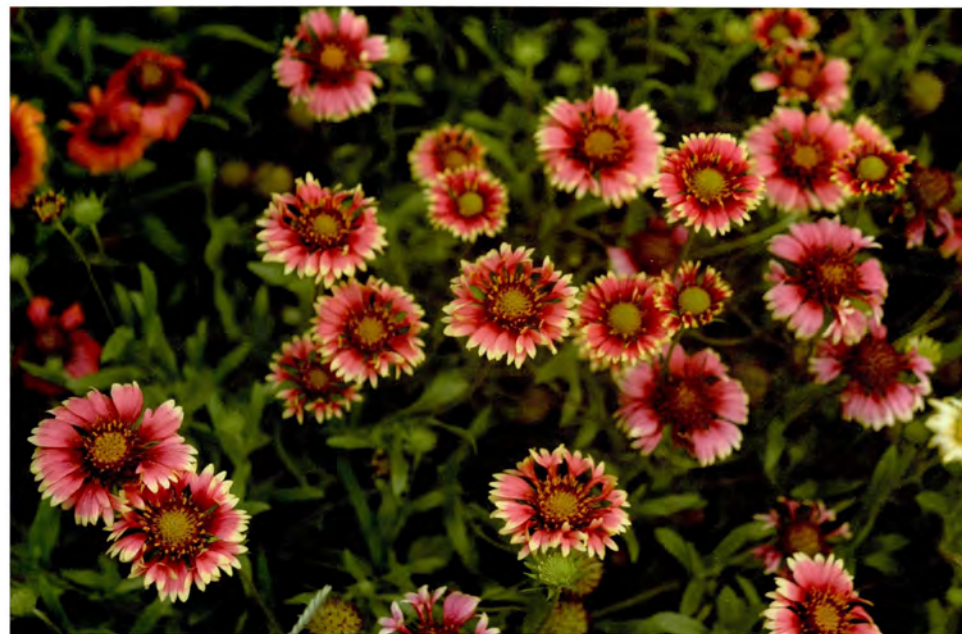
그룹 2. 꽤 건강한 종이나 휴면기간 동안 갈무에는 견딜 수 없다. 확실한 배수가 필요하며, 적절히 비옥한 토양과 충분한 햇빛이 요구된다. 돌로 된 정원이나 높은 화분에 적합하고, 구근틀이나 고산식물 온실에서 자랄 수 있다.

그룹 3. 축축한 초원이나 삼림지 종으로, 풍부한 부식토와 낙엽이 습기를 보유할 수 있는 토양이 필요하고 약간의 그늘을 위한 충분한 햇빛도 필요하다. 서늘하고 축축한 여름지역에 적합하다.

그룹 4. 축축함에 견딜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작고 비옥하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이 필요하며 햇빛이 잘 들고 비에 대한 보호막이 있어야 한다. 추운 온실이나 구근틀에서 기르며 휴면기간에는 건조함을 유지한다.

종식은 가을에 병상에 파종을 한다. 봄에 발아를 할 때까지 겨울의 추위에 노출시키고 서늘한 온실로 옮겨준다. 작은 종은 화분에서 2년동안 길러야 한다. 분지를 분주해 주거나 모아주고 쓸과 같은 작은 주아를 늦은 여름에 뿌린다.

해충 및 질병은 민달팽이와 나방의 유충에 의한 피해가 있다.



화려한 정원식물

천인국 속(Denus *Gaillardia*)

일년생, 다년생 그리고 이년생 식물 30여 종의 속으로 북미와 남미, 서쪽과 미국의 중앙지대의 대초원과 언덕비탈의 넓고 양지바른 서식지에서 발견된다. 수많은 재배종들은 밝은 색의 꽃이 있고 긴 개화시기를 지닌 덩불이 많고 잎이 무성한 식물이다. 천인국은 매우 오래전부터 국내에서 재배되어온 식물이기도 하다. 이들은 양지바른 화단 테두리에 효과적이다. 대부분 내한성이 뛰어나고 햇빛 아래 비옥하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잘 자란다. 간혹 토양이 너무 비옥해 한겨울에 꽃이 너무 많이 피었다가 종자를 맺기 위해 일시 정지할 수 있는데 이때 이따금씩 꽃대를 제거해주면 약 2주 후면 다시 꽃을 피운다. 토양이 너무 건조하고 척박할 때는 간혹 비료와 물을 관수해주는 것이 더욱 화려한 꽃을 감상하는데 도움이 된다.

국내에서는 어디에서나 재배가능하며 토질을 별로 가리지 않는 강한 생육특성을 가진 식물이다. 병충해가 별로 없어 조경에 이용하기 좋은 소재이기도 하다. 일년생과 다년생의 종자를 이른 봄 기온이 13~18도 일 때 파종하고, 이년생 종자는 늦봄이나 초여름에 파종을 한다. 대부분의 다년생 식물들은 처음 종자를 파종한 첫해에 꽃을 피운다. 봄에 다년생 식물체를 분주해주거나 겨울에 뿌리삽을 해도 가능하다.



Special Iss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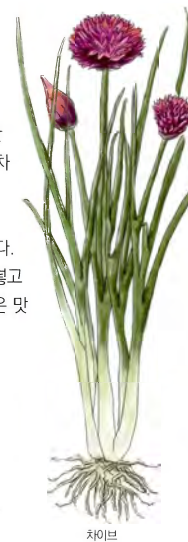
허브식물을 이용한 그 무엇

허브식물은 이제 다양한 종류들을 쉽게 구할 수 있어 우리에게 친숙한 정원식물이 되어있다. 허브식물은 단순히 향기식물을 넘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이다. 이번호에서는 허브식물로 이용 가능한 것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글 사진 편집실 그림 박미영

허브 버터

허브를 얇게 자른 허브와 버터는 잘 버무려진다. 허브는 자체의 강한 맛을 가지고 있어 좋은 버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약 한 스푼 정도의 허브 (마늘, 타임, 차이브, 로즈마리, 세이지 등)와 약 100g정도의 부드러운 버터를 넣어 골고루 섞일 때 까지 두드린다. 버터를 하루나 이틀 두었다 틀에 넣고 냉장고에 넣는다. 크림치즈와 같은 맛이 날 것이다.



차이브



골든세이지



로즈마리



차이브



엑스판세이지



타임



마조람



바질



보리지



펜넬

허브 오일

한, 두 가지 허브를 오일에 넣어 둔다. 올리브 오일, 해바라기 오일 등 요즘 많은 오일들이 점점 샐러드 드레싱, 마리네이드, 볶음 요리 등에서 쓰이고 있다. 이런 오일에 허브 잔가지들을 첨가하면 맛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섞은 재료를 한 달 정도 두고 난 후에 병에 담기 전 걸러내기를 한다. 이탈리아 요리에 많이 쓰이는 허브 오일은 바질 맛이 나는 올리브 오일이지만 펜넬, 마조람, 세이보리 같은 다른 오일도 유용한 허브 오일로 만들 수 있다. 마사지 오일로 보리지유를 이용하기도 한다.



보리지

허브차

한 잔의 차는 허브 잎을 넣기도 하고 따뜻한 물에 꽃이나 열매를 넣는다. (차는 발효되지 않은 식물 재료로 만들어진다.) 민트와 개모마일은 인기 있는 허브인데 가능 하다면 말린 것 보다는 신선하거나 얼린 잎들을 사용하는 것이 낫다. 잎 위에 따뜻한 물을 붓고 5~15분 정도 우려낸 뒤 마시면 된다. 절게 자른 신선한 허브를 물 한 컵에 티스푼으로 3번 정도 넣는다. (말린 경우 1 티스푼)



오메코롱민트



초콜릿민트



파인애플민트



페니로얄민트



파인애플민트

혼합 허브

몇 종류의 허브를 잘라 섞어놓은 혼합물은 훨씬 강한 맛을 가진다. 인기 있는 재료로는 세이지, 타임, 마조람, 파슬리가 있다. 이 혼합 허브는 신선하게 사용하거나 말려서 사용할 수 있다. 생선과 육류 요리에 사용하면 좋다.



가드세이지



마조람



체리세이지



마조람



타임

포푸리

오랫동안 향이 지속되는 말린 꽃이나 잎의 혼합물이다. 전형적인 포푸리들을 보면 만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화려한 꽃들(메리골드, 장미, 델피니움, 수레국화 등)로부터 꽃잎을 모은 다음 그물 바닥이 있는 받침대에 향이 나는 허브(레몬밤, 라벤더, 파인애플 세이지, 제라늄, 베르가못 등)의 잎들을 뜯어 함께 둔다. 건조용 선반에 1~2주 동안 두고 가끔씩 바삭해질 때 까지 움직여 준다. 이제 향신료 혼합물(향을 풍부하게 한다)과 고정액(단시간에 향이 나가는 것을 막는다)을 추가해야 한다. 약 3주 동안 철저히 말봉시키도록 한다. 향기가 사라질 때에는 몇 방울의 꽃 오일을 첨가하면 된다.



라벤더



레몬밤



베르가못



제라늄



파인애플세이지



베르가못



바질

페스토

페스토는 파스타, 스테이크, 닭과 오리 요리에 주로 사용 되는 인기있는 이탈리아 소스이다. 파마산 치즈, 잣, 올리브 오일과 두 가지 허브(바질과 마늘)를 섞어서 사용한다.



바질



마늘

허브 식초

한 종류나 그 이상의 허브를 식초에 넣는다. 선택한 허브의 잔가지 몇 개의 잎을 뜯어서 유리병에 넣는다. 그리고 그 위에 미지근한 물과 인식초 약 0.5리터를 붓는다. 완전히 밀봉해서 따뜻한 장소에 약 2-3주 정도 두고 가끔씩 흔들어 준다. 식초를 부어서 걸러낸 후 허브의 잔가지와 함께 병에 담는다. 식초 만들기에 알맞은 허브에는 민트, 달, 로즈마리, 허브, 월계수, 바질, 타임이 있고 이 중 한가지를 사용하거나 섞어서 사용할 수 있다.



바질



딜



로즈마리



스피어민트

샐러드 꽃

허브에서의 꽃은 샐러드, 차가운 음식에 좀 더 강한 맛을 위해서도 사용된다. 종류에는 차이브, 한련화, 바질, 타임, 금잔화가 있다.



금잔화



한련화



차이브

**“도심광장, 교통섬, 건물앞 공터, 옥상”
행사 디스플레이, 실내정원용
어디에서나 쉽게 설치 가능!!**

구분	규격	*부가세 별도 단가
오아시스	1,000×1,000×300	400,000
	1,000×1,000×400	500,000
	1,000×1,000×600	600,000

* 식물, 토양 별도 구매
* 10개 이상 구매 시 배송비 무료

출원번호 10-2014-0137480

오아시스(박스정원)

암석가든형

돌과 식물들을 조화롭게 배치한 암석가든



혼합가든형

다양한 식물들을 이용하여 조성한 미니정원



텃밭가든형

채소와 꽃들을 이용하여 연출한 도시텃밭형



우리꽃영농조합법인
구입문의 T. 031-634-7990

관목
시대부의상징, 향기많은 꽃
목단(Paeonia)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봄에 꽃을 피우는 정원용 관목으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정원용 관목, 목단을 소개하고자 한다.

글 사진 편집실

예로부터 목단은 동양의 부귀를 상징하는 꽃이다. 궁궐은 물론 명문가문의 경우 정원을 마련하고 목단을 즐겨 심었던 것이다. 최근에는 서양에서도 대표적인 조경수종으로 많이 식재되고 재배된다. 때문에 품종도 매우 다양하게 개발되어 우리의 조경현장에 알맞게 선택 재배할 수 있다.

목단은 공원, 도로변, 정원 등 다양한 곳에 널리 쓰이는 화려한 봄 꽃으로 개인정원에 한 두 포기만 있더라도 꽃이 피면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또한 공원 등에도 중간 중간에 군식해 준다면 더 할나위 없이 아름다운 봄을 연출해줄 수가 있다. 품종도 다양하여 원하는 크기, 색상 등을 골라서 선택할 수 있다.



목단은 공원, 도로변, 정원 등 다양한 곳에 널리 쓰이는 화려한 봄꽃

그리고 돌사이 식물로도 좋은데 일반적으로 뿌리가 강하고 깊게 뻗는 성질은 물론 잔뿌리의 발생도 좋아 작은 공간 혹은 깊게 뿌리가 들어가야 관근이 형성되는 암석사이 식물(메지식물이라고 주로 표현함)로 아주 좋은 소재이다. 꽃송이가 매우 큰 편인데 10cm~20cm에 달한다. 화색은 백색, 황색, 적색,

가장 적합한 식재시기는
토양온도가 공중온도보다
높은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경

자색 등과 복합색 계열이 있다. 화형은 국화형, 장미형, 탐형 등의 형태가 있고 묘기의 형태도 일반적인 직립형 외에도 반개장형, 완전개장형이 있다. 키 또한 상,중,하 등급으로 나뉘어 환경에 알맞게 선택할 수가 있다. 목단은 봄에 피는 관목이어서 봄에 사서 식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목단의 식재는 봄, 여름은 피하고 가을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것은 목단의 생육특성 때문이다. 봄부터 여름까지의 기간에 뿌리에 많은 상처를 주게 되면 상처가 아물지 않고 계속해서 썩게되고 새로운 뿌리의 형성이 되지 않아 영양공급이 잘 되지 않고 고사할 확률이 매우 높다. 특히 봄은 화아가 신속히 생장하는 시기로서 이때에 뿌리에 상처를 주게 되면 새로운 뿌리가 형성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영양공급에 장애를 주어 꽃을 피우지 못하는데 이런 현상은 수년간 지속된다. 가장 적합한 시기는 토양온도가 공중온도보다 높은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경인데 이때는 상처도 빨리 아물고 새로운 뿌리도 신속히 형성됨으로 활착률이 높고 월동 또한 잘된다. 너무 늦으면 동해를 입을 수도 있다.

식재지는 습지를 제외하고는 빛이 드는 모든 토양에 가능하다. 식재할 때는 구멍이를 깊숙이 파고 밑거름을 많이 주어야 한다. 일반적인 관리에 있어서는 꽃망울 형성시기와 꽃이 진후에 2~3회 인비 혹은 칼슘(복합)액비를 500~1,000배 희석하여 관주해 주면 꽃이 크게 피고 새로운 화아형성에 도움이 된다. 전지할 시기는 개화기가 끝난 후 바로 해야하는데 한 가지에 두 개의 눈만 남기고 밑 부분의 신생 맹아지는 잘라 버리는 것이 좋다. 종자로 번식할 경우에는 가을에 직파하거나 노천매장했다가 봄에 파종하면 되는데 꽃이 피기까지는 3년이상 소요된다.

다양한 목단 품종



상록의 관목이 물려옵니다

Juniperus (향나무류)

- 잎의 질감이 뛰어납니다.
- 상록으로 겨울가든에 최적의 소재입니다.
- 암석가든, 도심피복지, 아파트 등 어디에 적용해도 좋은 전천후 관목입니다.



골드스타형



골드카넷형



블루카넷형



블루애로우형
구입문의

우리꽃영농조합법인
031-634-7990

이명호의 야생화



진달래가 알리는 봄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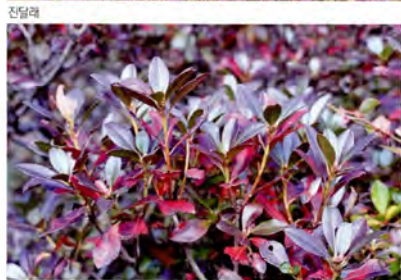
봄꽃을 대표하는 야생의 꽃은 과연 무엇일까? 봄이 왔음을 알리는 꽃으로는 개나리와 진달래를 빼놓을 수가 없다. 4월 초순이면 전국의 산악이 불에 타듯 붉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건 바로 진달래가 활짝 피어서 알리는 반가운 봄소식이다. 이때쯤 되면 으레 동네 꼬마들은 진달래를 한 움큼씩 따서 입에 넣기도 하고, 동네 처녀들은 꽃을 한 바구니씩 따와서 화전을 부치거나 술을 담는 전통이 옛날부터 있어 왔다.

수줍음을 잔뜩 안은 꽃

봄이 되면 북쪽의 백두산에서부터 남쪽의 한라산에 이르기까지 일보다 앞서 꽃을 피워 산을 온통 진분홍으로 물들이는 꽃, 진달래는 오랜 세월을 두고 우리 겨레와 애환을 함께 하며 살아온 한국의 꽃이다. 한국인의 정서는 순수와 미덕이다. 이 진달래야말로 우리 한국인의 정서를 가장 잘 간직하고 표현해 주는 꽃이 아닐까?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에 악산 진달래꽃 아를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사.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김소월님의 시 구절에서도 진달래는 정말 소박하고 수줍음 많은 한국 여인의 서정적인 마음을 노래한 것이 아닐까? 우리 민족의 소박하고 순수한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는 꽃이 바로 진달래이다.

참꽃과 개꽃

진달래를 참꽃이라 한 데 대해 철쭉꽃을 개꽃이라고 불렀다. '개'란 개꿈·개소리·개덕 등의 경우와 같이 흔히 참된 것이나 좋은 것이 아니라는 접두어로 사용되었는데, 여기서는 참꽃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사용된 것이다. 그런데 꽃의 생김새로 보아서는 철쭉꽃이 훨씬 더 탐스러운 꽃인데도 거기에는 굳이 '개'자를 붙인 것은, 진달래는 먹을 수



진달래(단풍)



탈진달래

있고 철쭉꽃은 독성이 강하여 먹을 수 없다는 데서 참꽃과 개꽃으로 구별하여 부르게 된 것이다. 옛날부터 4월에 피는 진달래를 참꽃이라 하고 이보다 약 1달 정도 늦게 피는 철쭉꽃을 개꽃이라 하는데, 먹을 수 있다는 뜻의 참꽃과 한라산의 참꽃나무는 엄연히 다른 것이므로, 바르게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진달래의 특징

전국의 산과 들에서 무리지어 자라는 낙엽관목이다. 높이는 2~4m이고, 밑동에서 줄기가 여러 개 갈라지거나 뿌리에서 줄기가 여러 개 올라와서 자란다. 줄기 윗부분에서 많은 가지가 갈라지고 비스듬히 뻗어 전체가 둥그스름해진다. 작은 가지는 연한 갈색이고 비늘조각이 있다. 잎은 어긋나고 긴 타원 모양의 피침형 또는 거꾸로 선 피침형이며, 길이가 4~7cm이고 양끝이 좁으며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잎 표면에는 비늘 조각이 약간 있고, 뒷면에는 비늘 조각이 백백이 있으며 털이 없다. 가을에 단풍으로 붉게 물든다. 잎자루는 길이가 6~10mm이다. 어린 줄기는 밝은 갈색을 띄지만 옥을수록 회색이 되며, 가지가 떨어진 자리에 볼록한 웅이가 생긴다. '참꽃' 또는 '두견화'라고도 부른다.

진달래의 꽃과 열매

꽃은 4월에 잎보다 먼저 피고 가지 끝 부분의 결눈에서 1개씩 나오지만, 2~5개가 모여 달리기도 한다. 화관은 벌어진 갈대기 모양이고 끝이 5개로 갈라진다. 꽃은 홍자색 또는 연한 홍색으로 피며, 지름이 4~5cm이고 겉에 털이 있다. 수술은 10개이고 수술대 밑 부분에 흰색 털이 있으며, 암술은 1개이고 수술보다 훨씬 길다. 열매는 삭과이고 10월에 길이 2cm 정도의 긴 원통 모양의 열매가 붉은 황색으로 익는다. 끝 부분에 암술대가 남아 있다. 다 익으면 열매껍질이 5갈래로 길게 갈라져 씨앗이 나온다. 겨울에도 열매껍질이 가지에 매달려 있다.

진달래의 생육환경

생육환경은 토양조건에 관계없이 반그늘과 양지에서 잘 자란다. 군락성이 강하다. 낮은 산에서 높은 산까지 50~2,000m 고지의 양지바른 곳에 주로 분포한다. 진달래는 축축한 곳을 매우 싫어하고, 영양분이 풍부한 곳에서는 다른 식물과의 경쟁에서 밀려난다. 그래서 늘 척박한 산지에서 자주 관찰된다. 때문에 자연림이 발달해야 할 곳에 진달래꽃이 만발한 산비탈이 있다면, 그곳은 분명 산불이나 벌채로 수 년 또는 그 이전에 훼손된 곳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진달래와 철쭉의 구별

진달래가 피고 나서 철쭉은 약 1달쯤 뒤에 꽃이 핀다. 하지만, 위도와 고도가 다른 곳이라면 거의 같은 시기에 꽃을 볼 수도 있다. 이들을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은 진달래의 경우는 꽃이 먼저 피고 나서 꽃이 질 때쯤 잎이 돋지만, 철쭉의 경우는 잎과 꽃이 거의 동시에 핀다. 또한 잎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 진달래의 경우는 잎에 끈적거림이 거의 없는 반면, 철쭉의 경우는 잎에 끈적거림이 많다. 그래서 철쭉과 산철쭉의 잎은 독성이 있어 동물들이 잘 먹지 않는다. 경상남도 밀양에서는 진달래꽃이 진 뒤에 연달아서 철쭉꽃이 핀다고 하여 '연달래'라고도 부른다.



고리진달래



임지리 참꽃나무



충장동



참꽃나무

진달래 무리의 비교특징

전국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진달래(*Rhododendron mucronulatum* Turcz.)는 홍자색 또는 연한 홍색으로 꽃이 피고, 흰진달래(*Rhododendron mucronulatum* Turcz. for. *albiflorum* (Nakai) Okuyama)는 흰색으로 꽃이 핀다. 털진달래(*Rhododendron mucronulatum* Turcz. var. *ciliatum* Nakai)는 잔가지와 잎에 털이 많고 바닷가와 높은 산에서 흔히 자란다. 털진달래 중에서 흰색 꽃이 피는 것을 흰털진달래(*Rhododendron mucronulatum* Turcz. for. *alba* Nakai)라고 하며, 해안 근처에서 간혹 볼 수 있다. 진달래와 흰진달래는 꽃이 먼저 피었다가 진 후에 잎이 피지만, 털진달래와 흰털진달래는 꽃이 피어 있는 상태에서 잎이 함께 피기 시작하는데, 잎의 표면에 털이 보송보송한 편이며 진달래보다 약 한달 정도 늦게 핀다. 진달래는 산지의 낮은 곳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반면, 털진달래는 아주 높은 산의 정상 근처에서 볼 수 있는데, 다른 진달래들이 다 진 다음 철쭉꽃이 만발할 무렵에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꼬리진달래(*Rhododendron micranthum* Turcz.)는 '참꽃나무겨우살이'라고도 부르며, 석회암이 많이 분포하는 어느 지역에서는 산 골짜기 계곡을 따라 올라가며 대군락으로 모여 자라기도 한다. 6월 초순에서 중순에 걸쳐 볼 수 있는데, 남한 일대에서 볼 수 있는 진달래 종류들 중에서는 가장 늦게 피는 여름 꽃이다. 생김새는 진달래와 영 거리가 먼 것 같지만, 잎 모양에서 진달래의 특징을 그대로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라산에는 진달래보다 꽃이 크고 밝은 색을 띠는 참꽃나무(*Rhododendron weyrichii* Maxim. var. *weyrichii*)가 있는데, 넓은 난형의 잎이 어긋나고 가지 끝에서 3개씩 돌려나는 것이 특징이다. 지리산과 가야산의 바위지대에서 볼 수 있는 흰참꽃나무(*Rhododendron tschonoskii* Maxim.)는 2-5개의 작은 흰색 꽃이 산형꽃차례를 이루면서 피는 것이 특징이다. 백두산 정상 부근의 초원에는 키가 아주 작은 좀참꽃(*Rhododendron redowskianum* Maxim.)이 자란다. 광활한 산지에서 군락을 이루어 피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키는 대략 10cm 정도인데, 아주 작은 식물 이틀 앞에 '좀'이라는 접두사를 붙여서 부르는 것이 특징이다. 백두산 정상 주변에서 6월초 가장 일찍 붉게 피는 꽃이 바로 담자리참꽃나무(*Rhododendron parvifolium* Adams for. *albiflorum* Hara)이다. 키가 약 20cm 정도로 작고 바위에 다닥다닥 붙어서 달리는 꽃들이 매우 귀엽기만 하다.

용도 및 번식법

주로 관상용으로 쓰이며, 꽃은 식용 또는 약용으로 한다. 이른 봄에 피는 꽃으로 화전을 만들어 먹거나 진달래술(두견주)을 담그기도 한다. 차를 끓여 마시기도 한다. 한방에서는 꽃을 영산홍(迎仙紅)이라 하여 약재로 쓰는데, 해수·기관지염·감기로 인한 두통에 효과가 있고, 이뇨 작용이 있다. 진해, 조경(調經)의 효능이 있고 혈액의 순환을 활발하게 한다. 적응질환은 기침, 고혈압, 토혈, 월경불순, 폐경, 월경이 멈추지 않는 증세 등이다.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살짝 말려서 약으로 쓴다. 꽃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눈이 침침해질 수 있으며, 꽃술에 약간 독성이 있으므로 떼어내고 사용한다. 꽃과 잎은 봄에 채취하여 생것을 쓰거나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잠시 말려서 쓰고, 부리는 가을과 봄에 채취하여 햇빛에 말려서 쓴다. 고혈압, 관절염에 뿌리·줄기·잎을 말려 달여서 마신다. 기관지염에 꽃술을 떼어낸 생 꽃을 같은 양의 흑설탕에 재워서 효소를 만든 뒤 물에 타서 먹는다. 봄에 돌아온 새순을 가을에 심목하고, 9~10월경에 익은 종자로도 번식을 한다. 하지만 종자는 워낙 미세종자이고 발아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하지는 않는다.



흰진달래



한참꽃나무



흰털진달래



흰털진달래

글 사진 이명호 이명호의 아생화
http://www.skyspace.pe.kr



가든조아
Seed the Dream, Unroll it.

www.gardenjoa.com

정원도구 특가세일
'베란다 텃밭, 옥상텃밭, 정원관리에 활용하는 도구 총집합!'

20%
~최대 30%할인



손도구 앞치마 7종세트

22,500

18,000원

정원도구세트의 최강자! 앞치마에 요긴한 정원도구들을 담아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구성: '스테인레스 티 블레이드 하드우드 손잡이', 모종삽, 갈퀴2종, 파종기, 장갑(PVC코팅 그림), 앞치마 포함

손도구 가방 7종세트

18,000

12,000원

파종하기 묘종 옮겨심기 결순따기 가지고르기 등 텃밭관리에 필요한 도구를 가방 안에 모두 담았습니다. 정원 손도구 가방 세트로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구성: '크롬도금 스틸 블레이드, 우드손잡이' 분무기, 전지가위, 모종삽2종, 갈퀴, 끈(30미터), 가방 포함



손도구 앞치마 4종세트

15,000

10,000원

기본도구만 알차게 담았다! 가든도구 5종세트입니다.

구성: 저탄소 강스틸블레이드, 크롬도금, 우드손잡이(도구 길이 약 25.5cm), 갈퀴2종, 모종삽 2종

어린이 앞치마 4종세트

11,250

7,000원

어린이 텃밭 정원에 필수품! 어린이가 텃밭 활동에 필요한 정원 손도구들을 귀여운 앞치마 안에 모두 담았습니다.

구성: 무독성 코팅 스틸블레이드/우드손잡이, 삽2종, 갈퀴, 앞치마 포함



2만원 이상 구매시 재배백 사은품 증정!(셀러드재배백/ 당근재배백 중 랜덤 발송)

- 어디든 간편하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텃밭 상자형 플라스틱 백입니다.

blog.naver.com/gardenjoa777 가든조아:031-712-7009



테마가 있는 식물이야기 연재- ④

글 사진 편집실 그림 박미영



1. 음지식물의 이해와 적용

강렬한 화려함으로 음지를 밝게 하는 붉은임동자꽃

동자꽃은 우리에게 익숙한 꽃이다. 주로 깊은 산 숲속이나 초원에 수줍은 듯 화려함을 자랑한다. 붉은임동자꽃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동자꽃과는 있어서 확연히 구별되며 그 생육 적응성도 매우 좋은 식물이다. 일반적으로 동자꽃(*lychnis cognata*)의 경우 내공해성과 건조에 약해 일반적으로 재배가 까다로운 식물에 속한다. 또한 화기가 7~8월로 비교적 짧은 화기를 가진다. 그러나 붉은임동자꽃(*lychnis arkwrightii* 'Vesuvius')은 동자꽃과 꽃의 모양은 비슷하지만 꽃이 진한 주황색이며 형광색을 발광하여 매우 강렬하고 화려하다. 특히 잎이 짙은 갈색으로 진한 적색을 나타낸다. 키는 일반종에 비해 30~40cm로 작고 다화성이며 개화기는 6~9월로 장기간화하며 양지에 식재시 또는 여름철 너무 고온기에는 꽃이 적은 경향이 있으나 일반종에 비해서는 매우 개화기가 길다. 생육도 강건해 음지나 양지 모두에서 적응이 잘되고 특히 약간의 물빠짐이 좋은 사질의 비옥한 토양을 더욱 좋아한다.

일반적인 극음지는 생육이 불량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활엽수의 장자리 음지에서 적응성이 특히 좋아 음지식물로도 분류한다. 이는 강한



붉은임동자꽃



햇빛을 싫어하고 이른 봄 빠른 신초를 띄워 낙엽수의 잎이 피기 전 적당한 햇빛을 받아 벌브를 키우고 6월이면 꽃을 피우게 된다. 잎이 붉은색으로 그 자체로서도 관상 가치가 있으며 특히 음지를 꽃으로 밝게 하거나 문양을 줄 때 유효하며 특히 건물 주변에 아침저녁으로 햇빛이 잠깐 드는 습기 있는 곳에 적용하면 좋다.

시비는 질소성분을 너무 주어도 오히려 자라게 되고 지저부가 상하게 되어

쓰러지기도 하므로 퇴비를 줄 때 석회질비료를 함께 주는 것이 좋다. 1차 꽃이 만개한 후 꽃대를 잘라주면 2차 신장하여 다시 화려한 꽃을 피우게 되므로 관리의 포인트가 된다.

병충해는 그다지 없으나 나방의 애벌레가 꽃을 식해하거나 잎을 갉아먹는 경우가 있으며 긴 장마로 인한 물 빠짐이 나뭇잎과 빗방울에 의한 흠이 튀어



일반동자꽃

잎 뒷면에 병균이 침입하면 지저부와 잎의 파해를 가져와 쓰러지거나 생육이 불량해지지만 다시 친바람이 불면 소생하므로 일반 동자꽃에 비해서는 생육이 매우 강건하다.

Q&A

Q: 다년생 지피식물의 병해충관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다년생 식물들은 대부분 생육이 강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해충에도 매우 강하고 관리를 할 때에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여름에 장마로 인한 고온다습한 기후가 연속되어 병해충이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 지게 됩니다. 일년 중 장마기 관리에 신경을 쓰면 다년생의 경우는 크게 병해충으로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장마 전, 후로 살충, 살균제를 뿌려주는 것이 좋으며 특히 원추리류 식물들은 진딧물의 피해가 있어 좀 더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2. 수중, 수변식물의 이해

블루색의 시원한 고급 연못식물 화롱물사초



화롱물사초는 국내 도감에 소개되지 않은 식물이다. 백두산 화롱지방의 숲속 연못에서 발견하여 육성한 소재이다. 잎이 블루색으로 강하고 곧은 느낌으로 수심 10~20cm에서 큰 군락을 이루며 습지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는 식물이다.

왕삿갓사초를 닮았으나 백분이 많은 파랑색의 잎이 완전히 다르다. 줄기는 지하경으로 뻗으면서 튼튼하고 강한 블루색의 많은 촉을 내면서 세력을 키워가는 모습이 웅망하게 생겼다.

특히 우리에게 있어 수중의 그라스 종류가 빈약한 점을 고려한다면 매우 유용한 식물이다. 키는 평균 약 70~80cm 정도이고 1m까지도 자란다. 연못이 작은 경우 아름다운 습지 연출의 좋은 소재는 물론 칠새들의 보금자리와 어린 물고기들의 최상의 휴식처도 제공하는 식물이다. 수면부리가 발달하여 물의 정화능력도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을의 단풍이 늦게까지도 유지되며 여름 장마와 가을 태풍에도 잘 쓰러지지 않으며 바람결을 따라 하늘거리는 모습은 정말 고급스럽다.

3. 암석가든용 식물

양중맛은 꽃과 겨울상록의 푸르른 잎 비단너도부추



우리나라에서 너도부추는 흔히 분화용 시장에서 널리 유통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Armeria*속으로 실제로 *Armeria*속의 식물은 품종이

다양하고 세계적으로 란가든용식물로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여기에 소개하고자 하는 종은 그중에서도 키가 작은 비단너도부추(*Armeria maritima*)이다.



꽃은 5월에 피는데 꽃이 필 때는 연록색을 연출하고 수꽃의 수염도 장관을 이룬다. 번식은 주로 새로운 줄기 포기기를 떼어내어 식재시 보통 m²당 16~25본 정도가 적당하다고 본다. 혹시 생장이 식재시 줄기가 꺾어지거나 하면 아예 수면 정도에서 잘라주면 10여일 후면 다시 아름답게 자란다. 매우 강건하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할 것은 없고 간혹 매뚜



기 등의 벌레에 의한 가식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한다. 또 자연 회복력이 대단히 빠르므로 자연형 하천의 물길에 빠른 곳의 피복제로 적용하는 생태학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도시 작은 가정연못에 재배할 경우에는 작은 화분 등에 심어 연못에 넣어두면 흙사 부들이나 출몰 등의 작은 소형 소재처럼 느낄 수 있어 더욱 유리하다. 연못은 작는데 부들이나 줄 같은 큰 식물을 심으면 도시의 작은 연못은 그 경관적 이미지를 잃어버리기 쉬운데 그 대안으로 아주 유용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비단너도부추는 늦봄에서 여름에 걸쳐 진분홍색 또는 흰색꽃을 피우는데 솔잎 같은 잎속에서 꽃대가 여러 개 올라와 양중맛은 동그란 꽃을 피운다. 꽃이지고 난 뒤에도 조밀하면서도



보드라운 느낌을 주는 푸르른 잎이 매우 좋다. 란가든의 앞쪽에 2~3개를 모아 심거나 돌틈에 심으면 큰 식물들과 잘 어울리는 조화를 이루어 내고 옥상조경시에도 양쪽식물로 배치하여 심으면 좋다. 잎은 겨울에도 상록을 유지하여 유가를 비롯한 상록식물들과 더불어 겨울 란가든의 한 자리를 장식해준다.

번식은 종자와 분주를 통해서 하는데 분주는 봄, 가을로 식물체의 결을 따라 나누어서 트레이에 혹은 포트에 직삽하면 된다.

4. 화본과 사초과 식물로 대표되는 그라스

잎의 무늬와 이삭이 아름다운
무늬새



우리나라에는 *Calamagrostis*속으로 산새풀, 백산새풀, 실새풀 등 자생하는 몇가지 종류가 있다. 이번에 소개하고자 하는 무늬새그라스(*Calamagrostis acutiflora* 'Overdem')도 *Calamagrostis*속으로 아름다운 잎의 무늬와 여름의 이삭이 장점인 그라스종류이다.

잎은 폭이 좁고 칼처럼 곳곳하게 유지하며 전체적인 초형도 흐트러지지 않고 역삼각형으로 서있는 모습이 시원한 느낌을 가져다 준다. 하얀색 줄무늬가 잎의 태두리에 있어 무늬가 매우 아름다우며 무늬종 그라스인 무늬억새, 억새 모닝라이트 등과 마찬가지로 단독 식재나 포인트 식재로 적용하면 좋고 그 외에 군식에도 좋은 무늬종이다. 그리고 보통 억새 등의 그라스류가 가을에 이삭이 아름다운 정취를 담아내는데 비해 무늬새는 그에 앞서 6-7월경 이삭이 아름답게 만발하여 화려한 색색의 꽃 이상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준다. 가을로 넘어가면서 잎 전체적으로 일찍 갈변하지만 경관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한 두포기 포인트로 식재된 곳에서 다른 가을꽃들과 어울리며 나름대로 운치가 있다.

키는 50-60cm정도 자라 억새류 등 대형 그라스류에 비해 키가 작아 앞 라인에 식재할 수 있고 그라스원을 조성할때에도 초장이 중간형으로 물리나와 함께 대형종과 소형종의 중간형태의 부소재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재이다. 또한 암석가든 조성시에도 한 두포기 포인트 식물로 식재해주면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져다준다.

무늬새는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을 잘하며 수형이 예쁘고 꽃이 피었을 때 계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꽃이 피지 않아도 잎과 포기형태 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인 그라스로 쓰임새가 날로 늘어갈 수 있는 그라스 품종이다.



Q&A

Q : 허브를 정원에 많이 심었는데 잘 죽습니다. 왜 그런가요?

A : 허브라 함은 원래 뿌리, 줄기, 꽃을 가지고 약이나 향료로 쓸 수 있는 식물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흔히 사람들에게 알려진 허브는 잎이나 줄기에서 강하게 자극하는 향이 많이 나는 식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물들은 우리나라



의 여름 장마기때 너무 많이 자라 스스로 녹아버리는 경우가 많 습니다. 그래서 조정 용으로 식재하는 식물들은 생육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월동이 가능한지 체크하여야 하고 (예를 들어 라벤다, 로즈마리는 중부 권에서는 월동이 어려움) 너무 자랐을 때 적기에 전정을 해주어야 생육이 양호합니다. 우리나라의 허브라고 할 수 있는 섬백리향, 산마늘, 배초향, 톱풀, 박하, 총꽃 등이 생육이 강건하고 관리의 문제가 없어 좋고 속근사루비아, 모나다, 톱풀류, 꽃파, 에키나 등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있어 정원에 심기 좋은 허브입니다.

5. 향기식물 허브 이야기

펜넬(fennel)



일반 펜넬은 매력적인 다년생 식물로써 150cm까지 자라는 청록색 깃털 모양의 잎과 노란 꽃을 피운다. 펜넬은 가끔 다 자란 딜로 보이기도 하지만 펜넬은 더 높이 자라고 다년생식물이며 좀 더 강한 맛이 난다.

빛이 잘 들고 배수가 잘 되는 곳에서 잘 자라고 가정의 정원에서 다년생 허브로 키우는 것도 적합하다. 봄에 씨를 뿌릴 수 있지만 원예 시장에서 화분에 키워져 있는 것을 사게 더 쉽고 편리할 수 있다. 여름에 잎을 따고 딜(dill)과 같은 방식으로 씨를 수확한다.

잎을 잘라서 생선요리나 샐러드, 야채, 스프에 넣을 수 있다. 씨앗은 고등어 같이 기름기 많은 생선을 요리할 때 쓴다.

레몬버베나(Lemon Verbena)

레몬밤과 유사한 이 식물은 강한 레몬 향을 내는 잎을 가지고 있고 작은 꽃이 여름에 핀다. 그러나 레몬밤과는 달리 3m까지 자라는 소관목이다. 그리고 빛이 잘 들고 배수가 잘 되는 장소가 필요하고 겨울에는 추위를 피해야 한다. 레몬버베나는 화분에 심기에 좋은 식물이며 비바람이 없는 남방향 벽 쪽으로 두면 된다.

레몬버베나는 모든 레몬 허브중에서 가장 강렬한 향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몇몇 신선한 잎을 따서 샐러드나 사탕 등 레몬맛이 필요한 곳에 사용한다. 레몬민트차는 레몬버베나와 박하 잎사귀를 혼합해서 만드는데 아마도 허브 차 중에서는 가장 상쾌한 맛이 날것이다. 가을에 잎이 떨어지면 모아서 건조시킨 다음 포푸리에 사용하면 된다.





정원화로 좋은 우리 야생화

땅바닥 위에 피는 벚꽃 - 앵초

'산에 뭘 배추가?' 하게 되는 썩을 발견할 때가 있다. 배춧잎처럼 주글주글하게 생긴 잎에 부송한 솜털을 달고 올라오는 썩이다.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면 장소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한 달 후쯤에 그곳에 가보면 심중팔구 연분홍색 앵초가 잔뜩 피어나 있을 것이다. 앵초(櫻草)는 중국이름을 차용한 이름이다. 앵(櫻)자를 흔히 앵두나무로 해석하지만 벚나무라는 뜻도 있다. 옛날에는 한자(漢字) 하나로 여러 식물을 뜻하다 보니 정확히 어떤 나무를 가리키지는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앵초의 경우에는 벚꽃을 닮은 풀이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더 그럴듯하다. 일반적으로 벚꽃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땅바닥에 피는 벚꽃이 바로 앵초라고 생각하면 된다. 앵채(櫻菜)라고 했던 점으로 미루어 잎을 나물로 먹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앵초의 개화기는 4-5월이다. 몇 장의 잎 사이로 한 뼘 정도 높이의 꽃줄기가 올라오면 그 끝에 7-20개 정도의 연분홍색 꽃이 피어난다. 화관이 다섯 갈래로 갈라진 모습이 풍차 같아 하여 풍륜화(風輪花)라고도 한다.

앵초를 보고 대개는 "꽃잎이 하트 모양이네!"라고 하지만 꽃잎 대신 화관이라는 용어를 써야 맞다. 앵초의 꽃은 갈래꽃이 아니라 통꽃이고 끝이 다섯 갈래로 갈라진 형태일 뿐이기 때문이다. 갈래꽃이나 통꽃이나 구분은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식물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다. 또한 꽃의 겉모습만 볼 줄 아는 사람은 앵초의 꽃이 장주화 또는 단주화로 핀다는 사실을 모른다. 장주화는 암술이 수술보다 긴 꽃이고, 단주화는 암술이 수술보다 짧은 꽃을 말하며 중요한 것은 둘 다 열매를 맺는 꽃이다. 그러므로 암꽃 또는 수꽃이라고 하지 않고 장주화 또는 단주화라고 하는 것이다. 개나리도 같은 방식의 꽃이 핀다. 앵초의 꽃은 굳이 단면을 보지 않더라도 장주화인지 단주화인지 알 수 있다. 꽃의 가운데 구멍으로 암술이 솟아 있으면 장주화, 수술이 솟아 있으면 단주화다.

앵초(앵초과) *Primula sieboldii*

- ▶ 개화: 4-5월
- ▶ 높이: 15-40cm
- ▶ 분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습한 곳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이다.
- ▶ 뿌리: 짧게 옆으로 뻗는 뿌리줄기가 있다.
- ▶ 잎: 뿌리에서 모여 나고 배춧잎처럼 생긴 길쭉한 난형 또는 난상 타원형이며 가장자리는 얇게 갈라지고 톱니가 있다. 앞면은 잎맥을 따라 주름이 진다. 길이는 4-10cm, 폭은 3-6cm이며 밑자루는 길다. 어린잎일 때에는 흰 털로 덮인다.
- ▶ 꽃: 4-5월에 잎 사이에서 나온 꽃줄기 끝에 7-20개의 홍자색 꽃이 산형꽃차례로 핀다. 꽃줄기에는 굵은 털이 밀생한다. 포엽은 피침형이다. 꽃받침은 5갈래로 깊게 갈라지고 갈래조각은 피침형이다. 화관도 5갈래로 깊게 갈라지고 갈래조각은 수평으로 펼쳐지며 끝이 오목하게 파인다. 통꽃 속에 5개의 수술과 1개의 암술이 있다.
- ▶ 열매: 납작한 구형의 삭과이다.



앵초의 새싹



앵초의 장주화



앵초의 단주화

유사종 알아보기

앵초와 비슷한 식물 중 자생종으로는 큰앵초, 설앵초, 좀설앵초 정도가 있다.

큰앵초(*Primula jesoana*)는 비교적 높은 산의 습기 많은 숲 속에서 자란다. 앵초보다 전체적으로 크고 잎이 방패 모양인 점이 특징이다. 5-6월에 꽃줄기 위쪽에 1-4단의 층을 이루어 각 층마다 여러 개의 진한 홍자색 꽃이 핀다. 드물게 흰색으로 피는 것도 있다. 꽃의 색이 아름다워 정원의 관상용으로 개발할 가치가 높은 야생화다.



큰앵초



큰앵초의 흰 꽃

설앵초(*Primula modesta* var. *hannasanensis*)는 경남과 제주도 및 북부지방의 높은 산 풀밭이나 바위지에서 자란다. 앵초나 큰앵초 비해 전체적으로 작다. 잎은 주걱 또는 넓은 달걀 모양이다. 눈 속에서 피는 앵초라는 뜻의 이름이지만 꽃은 4-6월에 피기 때문에 눈과는 거리가 있다. 제주도의 한라산에 많이 분포하며 흰색에 가까운 꽃이 발견되기도 한다. 분화(盆花)로 개발하면 좋다. 좀설앵초(*Primula sachalinensis*)는 북부지방의 높은 산에서 자라며 남한에서는 자생하지 않는다. 백두산의 소천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키가 작은 편이며 설앵초에 비해 잎자루가 없고 잎 가장자리에 톱니가 거의 없는 점이 다르다. 흰색 또는 연한 분홍색으로 피는 것도 있다.

'프리몰러(*Primula*)'라는 이름의 꽃들은 서양의 앵초 원예품종이다. 세계적으로 500종 이상의 원예품종이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흰색, 붉은색, 노란색, 자주색, 푸른색 등 다양한 꽃색을 지닌 품종이 길가나 공원의 조경용으로 많이 심어진다. 프리몰러는 라틴어로 'primus(최초)'라는 뜻이며 유럽의 앵초가 일찍 피는 데서 나온 말이다.



설앵초



설앵초의 흰색에 가까운 꽃



좀설앵초



프리몰러 품종

심기와 관리하기

- 반그늘 또는 양지에서 잘 자란다.
- 배수가 잘 되고 통기성이 좋은 사질 양토에 심으며 충분한 물을 주어 관리한다. 늘 알맞은 습도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 좋다.
- 추위에 강해서 월동을 잘 한다.
- 꽃눈이 올라올 무렵에 덩이거름을 얹어주고 물은 물거름을 매주 한두 번 정도 부려준다. 이른 봄이나 가을경에 포기나누기로 증식한다. 6-7월 경에 성숙한 씨를 채종하여 곧바로 파종하거나 응달에서 말린 후 5일 정도 냉장 보관했다 파종하면 발아가 잘 된다.
- 뿌리꽃이도 가능하다. 3월경에 뿌리를 잘라 모래 깊숙이 꽂으면 싹이 트며 2년차에 꽃이 핀다.



심은 앵초의 모습(한국도로공사수목원)



심은 앵초 군락의 모습(한백식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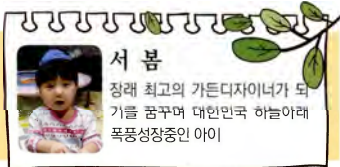
글 사진 이동혁

핵심삼촌의 꽃꽃나무 일기

<http://blog.naver.com/freebowl>

한국의 나무 바로알기, 한국의 야생화 바로알기 저자

서봄과 함께 떠나는 정원식물 나들이



고급스런 잎이 꽃을 능가하는 품위가 있습니다.

휴케라



'휴케라'라는 이름이 아직 낯선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유럽에서는 매우 고급종으로 각광받으며 사용되고 있는 품종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전부터 정원에 조금씩 적용되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고급스런 잎이 일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만 원활하다면 그 수요의 폭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품종입니다.

잎은 적색, 황색, 녹색 등을 띄는데 주로 잎이 적색을 띄는 품종이 많습니다. 품종에 따라서 잎에 광택이 나는 것도 있고 연한 적색을 띄며 잎맥이 확연하게 보이는 등, 같은 적색계열에서도 형태적으로 또는 잎의 색상적으로 다양

꽃이 올라와 있네요



멋진 휴케라가 재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품종이 존재하고 그래서 선택의 폭도 매우 넓습니다.

임 자체로 질감이 뛰어나 분화용으로도 많이 이용되지만 고급 정원의 포인트식물로 제격이에요. 그리고 행사 등의 전시용으로도 좋은데 질감이 좋은 그라스류와 색감을 잘 고려하여 배치하면 꽃보다도 더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경관연출이 가능합니다.

키는 대부분 약 20~30cm정도 자라고 꽃은 5~6월경에 꽃대가 쪽 올라와 피는데 품종에 따라 하얀색, 빨강색 등의 꽃을 피웁니다. 일반적으로 반음지에서도 생육이 좋고 물 빠짐이 비옥한 토양을 선호합니다. 겨울철 가뭄에 주의해야하고 벗겨 등을 덮어 관리하면 좋습니다. 특히 물이 차는 지역에서는 결빙과 해빙을 반복할 때는 배수에 신경써야 합니다.

고급 품종 대부분이 종자번식이 불가능하여 분주하여 증식하기 때문에 일시에 대량생산이 쉽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잎은 그 어떤 아름다운 꽃보다도 귀족적인 품위가 풍기는 소재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만발~



1 품종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품종을?

휴케라의 종류



특집 2016 IPM Story



유럽하늘에 피어나는 우리꽃 현장을 찾아서 연재②

글 사진 박공영(우리씨드 그룹 사장)

우리는 27일 오후 5시쯤 박람회장을 나와 우리의 품종을 실제 재배하는 생산회사를 방문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하루 종일 먹구름과 비가 온 관계로 주변의 자연 풍경만을 구경하며 네덜란드로 달렸다. 그러나 우리의 차가 고속도로에서 퍼졌다. 그것도 아우토반에서……. 밤이 되고, 비는 오고, 온도는 내려갔다. 우선 안전을 위하여 모든 직원들을 차에서 내리게 하고 교랑 아래로 내려 휴식을 취하게 했지만 바람과 추위는 출동서비스를 기다리는 약 2시간가량의 기다림에 모두를 지치게 했다. 우리나라는 그런면에서 서비스천국이다.

다른 차로 교환하고 B&B 숙소로 도착했을 때는 거의 12시를 넘겨 모두들 늦초가 되었다.

다음날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홍합과 약간의 고기와 야채 그리고 버섯을 구입, 아침을 맛나게 해결하고 드디어 네덜란드의 대형 생산 전문 회사를 방문했다.

이전 같으면 방문을 허락지도 않았던 그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회사의 곳곳을 보여주고 우리의 질문에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세세히 설명해 주는 모습에서 우리꽃연구소의 위상과 우리씨드그룹의 자존감을



박람회에 선보인 포트 자동화 기계



재배 농가에서 우리의 로얄티 품종을 설명해주고 있다.

되찾았다는 감동이 밀려왔다.

가는 회사마다 사장이 혹은 최고 전문가들이 우리의 일행을 맞았다. 그들이 보여주고 알려주는 우리 품종의 특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농가에서 재배되고 있는 가우라 베이비 플러그묘

훨씬 전문화되고 고품질의 꽃을 생산하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터득할 수 있었다.

또한 생산 현장의 잘 짜인 인력과 기계화는 나를 또 한 번 가슴 뛰게 하였다. 20년 쯤 된 최고전문가의 연봉을 살짝 물었더니 오히려 우리나라의 기술자 연봉에 비해 낮았다.

그렇다면 우리도 경쟁력이 있다. 현재 우리의 시스템을 기계화 하고 젊은이들을 교육하고 기다려 줄 수 있는 노력과 함께 일정시간이 지난다



시험재배 되고 있는 조팝 골든바

면 다시 우리의 제조업도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도 가져본 여행이었다.

주로 네덜란드 암스텔담 주변과 덴하그(헤이그) 로테르담 지역을 돌고 다시 독일로 향하는 길에 고속도로가 아닌 지방도로로 우회했다. 독일의 시골집과 자연풍경을 느끼며 좀 더 그들의 문화를 접하고 싶어 택한 길이다. 온통 세덤으로 지붕을 덮은 통나무집을 발견하고 차를 세웠다. 옷매무새를 차린 주인의 자랑은 길게 이어졌다. 17년 전 만들어진 이 집은 너무 따뜻하고 에너지가 거의 들지 않는다며 자랑하는 고집 센 할머니의 모습에서 아련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업이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실감한 경험이었다. 다시 프랑크푸르트의 모차르트 민박에 들러 못다 한 여독(?)을 풀고 다음 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끝으로 너무나도 바빴던 일정과 나의 특유의 여행 버릇에 많이 힘들었을 우리 직원들 특히, 새로운 팀으로 합류한 친구들에게 고마움과 찬사를 보낸다.

그러나 이런 경험이 빠르게 세계시장을 이해하고 우리 것을 알릴 수 있는 용기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그들의 미래를 지켜보는 즐거움도 나는 재미있다.

모두모두 즐겁고 감사한 일이다.



온통 세덤으로 지붕을 덮은 통나무집 풍경

가든디자이너 오경아의 속초 정원 이야기

4월 April

봄이 오는 시간



글 사진 오 경 아

텃밭정원은 한자리에 같은 식물을 심지 않고 매년 자리를 옮겨주는 것이 필요하다

쉽게 봄은 오지 않는다

마당에 심어둔 튤립에 싹이 올라왔다. 정원 일을 하면서 새싹이 올라오는 순간을 지켜 보는 것만큼 즐거운 시간이 또 있을까! 기쁜 마음에 사진으로 찍어두기까지 했는데 다음날 일이 났다. 영동 지방에 25센티미터의 폭설이 내리면서 새싹을 완전히 덮어버렸다. 눈은 이들이 지나서야 녹았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눈에 덮여 동상을 입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튤립의 잎이 아직도 멀쩡했다. 새싹이 눈 속에서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뭘까? 그런 식물 스스로 열을 내기 때문이다. 동물만이 체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식물도 잎과 꽃을 피울 때 한시적이지만 열을 집중적으로 낸다. 싹을 돋아내고 꽃을 피우기 위해 에너지를 쓰기 때문이다. 일부 식물은 꽃을 피울 때 22도가 넘는 온도까지도 상승한다. 예상하건데 우리집의 튤립도 차가운 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온 몸으로 열을 내며 자신을 지켜냈을 게 분명하다.

오 경 아

<http://blog.naver.com/oka0513>

정원의 발견, 가든 디자인의 발견, 가든 디자이너 오경아의 영국 정원 산책 저자

작가이자 가든 디자이너로 활동중인 오경아는 정원을 문화로 보는 다양한 글쓰기와 예술과 접목된 생활 속의 정원을 디자인하고 있다.



이른 봄 막 돌아 온 새싹을 보는 것은 정원일의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다.

매년 경험하는 일이지만 계절은 그냥 오는 법이 없다. 어느 날 문득 봄이 왔어요가 아니고, 봄인 듯 싶었지만 다시 겨울이 뒷덜미를 잡고, 그러다 다시 봄이 왔음을 알려준다. 이 과정 속에 바람이 요동을 치고, 온도가 오르락내리락 정신을 못 차리고, 하늘에 떠 있는 구름까지도 분주해진다.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 역시도 한 번씩의 몸살을 앓게 된다. 이 모든 진통이 있어야 드디어 봄이 우리 곁에 온다.

그저 묵묵히 책상을 지키며 공부하여 드디어 빛을 내는 그런 유형이랄까? 이른 봄 어떤 식물보다 먼저 앞을 틔워주고, 그 앞을 봄과 여름 내내 지켜내고 드디어 초가을이 되었을 때 꽃을 피운다. 그런데 꽃을 피우지 않아도 국화는 그 앞으로도 충분히 정원에서 해야 할 역할을 다 해준다. 대신 이른 봄부터 여름까지 서너 차례 소담하게 국화를 잘라줘야 국화가 길게 다리를 뻗어 지자분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봄의 정원은 정리로 시작된다

오래된 한옥 집을 수리하다 생긴 나무를 이용해 작년 여름 남편은 작은 정자를 하나 지었다. 그 정자 앞에 좁지만 길쭉한 화단을 만들어두었다. 이곳에 나는 수선화Narcissus와 함께, 무스카리Muscar, 아스틸베Astilbe, 크로코스미아Crocsmia, 국화Aster, 억새Miscanthus zebra를 심었다. 이 화단의 첫 시작은 수선화가 싹을 돋아내는 것으로 시작된다. 올 해는 3월 중순이 넘어서야 수선화의 싹이 올라왔다. 화단에서 새싹을 발견하면 이제 청소를 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판단하면 된다. 본격적으로 새싹에게 일조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겨울 동안 화단에 덮여 있던 나뭇잎과 부스러기, 잔가지를 말끔하게 치워야 한다. 무릎에 이를 정도로 키를 키웠던 국화의 가지를 잘라주는데 꼬박 반나절이 걸렸다. 국화의 가지는 지상 위를 거의 다 잘라줘야 땅 밑의 뿌리에서 더 많은 새싹이 돋아난다. 정원 일이 깊어갈수록 다른 식물보다 국화 사랑이 깊어진다. 국화만큼 오랜 시간 정원을 지켜주는 식물도 없기 때문이다. 국화의 강인함은 '끈기'에서 비롯된다. 사람으로 치면 뛰어난 능력은 없어도

텃밭정원 그리기

아직은 4월까지도 텃밭정원은 그 시작이 조심스럽다. 지역에 따라서는 이때까지도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고 밤으로는 영하로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일도 생기기 때문이다. 충분히 추위가 떠났다고 생각될 때 텃밭에 채소를 심는 것이 좋다. 그런데 심는 시기가 늦다고 해서 준비가 늦어져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텃밭도 화단과 마찬가지로 청소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모종을 심기 최소 한 달 전, 우선 퇴비를 먼저 풀어서 흩어주는 작업도 필요하다.

내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외양간을 개조한 사무실 앞에 남쪽으로 큰 창이 내려져있다. 그리고 그 앞에 산딸나무를 심었고, 그 뒤로 작은 텃밭 정원이 보인다. 올해 텃밭 정원은 어떻게 구성을 하나? 작년 영국 여행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낯선 콩과 채소의 씨앗을 구매해두었다. 검은 바닐라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 중인데 올 해는 이 낯선 채소들을 재배해볼 생각이다. 네 개로 분할된 텃밭 정원은 크게 잎채소(상추, 차커리, 겨자, 청경채), 뿌리채소(당근, 마늘, 생강), 열매채소

(토마토, 가지, 고추), 당근채소(완두콩, 콩, 호박, 오이)로 구별이 된다. 이 전체 텃밭을 매년 시계 방향으로 돌려 같은 자리에 같은 식물을 심는 걸 피한다.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벌레의 천적이 될 수 있는 항나는 꽃을 피우는 식물(카렌둘라, 메리골드, 보리지, 허브)등도 텃밭정원에 가득 남치도록 구성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올해는 등복 더 풍성하게 꽃을 피워내게 할 참이다. 이제 계획이 세워지면 씨앗을 구매하고, 어떤 모종을 어떤 시기에 사야할지, 그리고 심어야 할 날짜까지도 체크를 해서 계획표를 세워야 한다. 이제 참으로 바빠질 정원의 계절이다.

준비와 기다림의 아름다움

올 봄 나는 새로운 화단 구성 계획을 잡고 있다. 돌로 쌓은 담장 밑에 잔돌을 깔아 그 틈에 고산지대 식물(알파인 식물)을 키우는 화단을 조성할 예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 봄에 돌 작업을 마무리 해줘야 한다. 그리고 여름과 가을 사이 틈틈이 식물을 심어 내년 봄을 기약할 예정이다. 작은 화단을 만드는데도 교박 사계절의 시간이 필요한 셈이다. 정원은 준비해야 아름답게 찾아온다. 그리고 그 준비는 서두름이 아니라 시간을 맞추는 '기다림'을 전제로 한다. 이 준비와 기다림의 시간이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 수 있다. 누군가는 정원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면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했다. 신의 목소리는 결국 자연의 시간을 배우게 된다는 말도 되지 않을까 싶다.



이런 봄, 화단을 깨끗이 정리해 해줘야 새봄에 새로운 새싹들에게 일조할 수 충분히 공급해줄 수 있다.



돌 틈 사이에 고산지대 식물을 키우는 '알파인 화단'은 규모가 작은 가정집 정원에 활용하기 적당하다.(영국 위슬리 정원의 알파인 화단)

시민정원사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

조경가든대학 '이천그린아카데미 8기' 모집



과정안내

주 최: 우리꽃영농조합법인 / 주관: 우리꽃연구소

교육기간: 2016년 3월 23일 ~ 6월 22일(매주 수요일, 총 14강)

교육시간: 오전 10시 30분 ~ 오후 3시 30분

장 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송곡리 696) 우리꽃 교육장

수 강 료: 50만원(교재 및 교육재료 포함)

강좌혜택 및 특징: 점심식사 제공(14강), 우리꽃 식물 구입 시 30% DC

우리꽃 행사 및 무료특강에 우선기회 제공 및 수료증 수여
실정원 답사기행

지원자격: 조경, 원예, 정원문화, 도시농업에 관심있는 분 누구나

교육문의: 전화 031-712-7009

팩스 031-634-7991 / gardenjoa777@naver.com

교육후기: <http://gardenjoa777.blog.me>

강좌소개

- 우리꽃 이천 본사에서 생생한 실습현장에서 당일 배운 이론을 적용해봅니다.
- 실습을 통해 농장에서 직접 수확한 채소로 맛있는 점심식사를 제공해드립니다.
- 각 분야 국내 유일의 최우수 전문 강사진 구성으로 실질적인 교육내용으로 강의합니다.
- 매주 우리꽃 농원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정원문화의 폭넓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 우리꽃 교육의 중심지로 그린아카데미 동문회에서 다양한 정원문화 활동을 전개합니다.

강의순서	강의내용	교수명
제 1강(3/23)	개강식/ 식물환경	아카데미원장 김영채 우리꽃 대표 박광영
제 2강(3/30)	수목종류와 특성	상명대학교 외래교수 김광두
제 3강(4/6)	채소정원 조성	(전)이천시 농업기술원 조남철
제 4강(4/13)	식재 및 관수	상명대학교 외래교수 김광두
제 5강(4/20)	정원의 이해	가든디자인스튜디오 대표 서수현
제 6강(4/27)	실내정원조성	자연누리협동조합 이사 황금옥
제 7강(5/4)	수목의 전지 전정	상명대학교 외래교수 김광두
제 8강(5/11)	아생화의 종류	우리꽃 대표 박광영
제 9강(5/18)	정원계획	가든디자인스튜디오 대표 서수현
제 10강(5/25)	병해충관리	경기나무종합병원(주) 대표 이종범
제 11강(6/1)	실외정원조성	우리꽃 대표 박광영
제 12강(6/8)	정원답사	캠브릿지재단원예조경고고학과 총 이 경
제 13강(6/15)	비배잔디	상명대학교 외래교수 김광두
제 14강(6/22)	식물번식 / 수료식	우리꽃 대표 박광영

조경가든대학 공통커리큘럼이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031-712-7009
팩스 031-634-7991
gardenjoa777@naver.com

정원과 아이들 (Garden & Kids)



텃밭, 베란다 등에서 아이들과 함께 꽃과 채소를 키우면서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는게 좋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더욱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식물들을 대할 것이다. 그런의미에서 식물이 살아가는데 필수요소인 빛과 물 그리고 양분에 대해서 우리아이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이들이 집이나 정원에 알맞은 자리에 식물을 심고 물이나 양분이 필요한 때를 이해하는 것은 정원을 가꾸어 나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글 사진 편집실

빛

식물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필요로 하고 사용한다.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광합성작용을 통해서 에너지를 축적하는 것이다. 식물마다 제각각 다른 양의 빛을 필요로 한다. 만약 식물들이 원하는 양의 빛보다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은 양의 빛을 받는다면 생육은 불량해질 수 있다. 크게 양지식물과 음지식물로 분류가 될 수 있다. 음지식물은 종종 삼림지대에서 자생하고 고사리 등 양치식물의 잎은 종종 멋있게 레이스형태로 되어있다. 만약 그늘을 좋아하는 식물을 햇빛이 가득한 곳에 놓았다면 잎은 엷은 그늘리고 노랗게 변할 것이다. 그리고 빛은 씨앗의 발아와 개화기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정량의 빛이 있어야 발아가 가능한 식물이 있는 반면 빛이 없는 상태에서 발아가 가능한 식물이 있다.



빛은 씨앗의 발아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음지식물인 맥문동(좌)와 옥잠(우)



식물이 물이 필요한 이유

물은 세포를 유지하고 생명활동 유지를 위해 무기물과 식물에 저장된 양분을 운반해 주는 역할을 해준다. 또한 잎에서의 물의 증발은 식물을 시원하도록 도와준다. 물의 양은 씨앗이 발아되어서 작은 식물로 자라기 시작할 때부터 정확하게 요구된다. 물을 지나치게 많이 주게된다면 고사하게 되는데 쉽게 사람에 비유하면 익사하게 되는 것이다. 뿌리가 너무 젖어서 충분한 공기를 받지 못하면 그들은 죽기 시작하고 양분을 얻는데도 문제가 생긴다. 특히 용기안의 식물은 계속 지켜보고 흙이 너무 마르거나 젖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시든 잎은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이다. 그리고 흙이 말랐으면 흙뻑 젖게 물을 주어야 한다. 식물이 흙으로부터 물을 끌어 올리는 방법은 매우 영리하다. 식물체에서 물의 이동은 뿌리와 잎을 연결하는 수분동로(도관)를 통해 이동을 한다. 그리고 출구를 통해 물을 끌어 올린다. 바람과 열은 식물이 잎을 통해 더 빠르게 물이 증산하게 만든다. 이것은 더 많은 물을 끌어 올리고 토양이 더 빠르게 건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늘하고 바람이 없는 날씨는 식물이 더 느린 속도로 증산한다. 그래서 식물은 그들의 뿌리에서 적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한다.



양분이 필요해!

식물은 우리와 같이 생존하기 위해 양분이 필요하다. 식물들은 뿌리를 통해 토양으로부터 영양분을 끌어올린다. 그리고 영양분은 그들의 출구를 거쳐 식물체에 순환한다. 그래서 식물들이 튼튼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심겨질 장소에는 사전에 퇴비를 이용하여 비옥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특히 화분이나 용기안의 식물은 가장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화분 안의 양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기 때문이다. 잎이 빨간색, 노란색으로 변하고 아파 보이거나 잎이나 꽃이 작아지는 것은 양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적정량의 양분이 필요하다. 식물을 잘 지켜보고 관찰하는 습관이 이러한 문제를 빨리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비료의 종류에는 사용하기 전에 물과 섞어서 주는 액체 비료와 토양표면에 낱알로 뿌리는 고형비료가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성장계절 동안이나 직전에 식물에게 주는 것이 좋다. 비료를 사용할 때 항상 제조사의 지시를 따르게 하고 확실하지 않다면 어른들이 도움을 주어야 한다. 권장량보다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식물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비료를 줄때에는 장갑을 끼거나 그렇지 않으면 비료를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게 해주어야 한다.



화분에 낱알로 뿌리는 고형비료

정원속의 식용 꽃(Edible Flower)

우리의 정원에는 다양한 식물을 키울 수 있다. 그 식물들 중에는 꽃, 잎, 뿌리 등을 먹을 수가 있는 종류들도 많이 있다. 그들은 그대로 날 것으로 먹든지, 말려서 차로 마시든지 식물에 따라서 제각각이다. 특히 아름다운 꽃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식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매력적인 일이다. 식용할 수 있는 꽃들이 어떤 것이 있고 이들을 재배하는 방법, 어떤 방식으로 먹을 수 있는지, 다양한 식용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글 사진 편집실 그림 박미영



한련화



비둘라



튤립



호박

식용 꽃 키우기

일년생 식물들중에서 대표적인 식용꽃으로는 한련화(*nasturtiums*), 팬지(*pansies*), 호박꽃(*squash blossom*)이 있다. 이 들은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한 식용 꽃들이며 일년생식물들로 파종에서 꽃 생장까지 한 해에 다 끝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식용 꽃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미 정원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들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 중에서 어떤 꽃들이 식용 꽃을 생산하는지 식용꽃 백과사전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식용 꽃을 가지고 있는지 정원을 둘러보면서 확인한다. 그리고 채소를 기르고 있는 텃밭도 확인해 보도록 한다. 채소밭에 있는 몇몇 채소를 또한 멋진 식용 꽃을 피우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다음단계로 구근, 관목, 나무와 같은 다년생 식물 몇 가지를 추가하는 것도 생각해 보도록 한다. 원추리, 튤립, 장미, 사과 꽃 모두 먹을 수 있는 꽃들이다. 가을에 일반적으로 심는 튤립의 양보다 좀 더 많은 양의 튤립을 심는 그런 방법들로 정원에 다년생 식용 꽃을 손쉽게 얻을 수 있다. 박태기나무나 사과나무를 심어도 된다. 여기저기에 몇몇 식물을 심으면서 주방에서 할 수 있는 당신의 요리 메뉴 몇 가지가 더 생기게 된다. 그들은 다년생이라 영구적인 장소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어디에 심을지 깊게 생각해서 결정한다. 그리고 나면 남은 공간에 일년생을 심어서 꽃을 수확하면 된다. 특히 팬지나 한련화 꽃은 품종에 따라서 맛은 거의 같지만 다양한 색깔이 눈을 자극한다. 식용 꽃을 제공하는 대부분의 식물들은 매일 최소한 6시간의 햇빛이 필요하다. 식용 꽃에 대해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식용 식물에 관련된 기본 휴대용 도감을 한 두 권 가지고 있으면 더욱 좋다.

GardenIn TIP

모든 허브 꽃들은 식용 꽃이다. 따라서 허브 정원은 샐러드를 위한 많은 꽃들을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장소이다. 그러나 모든 허브들이 꽃을 피우는 것은 아니어서 더 많은 식용 꽃을 얻기 위해서 허브 정원에 비둘라와 팬지를 추가해 주면 좋다.

한 편으로는 독이 있는 식물의 목록을 숙지하도록 한다. 친구나 이웃의 정원을 방문해서 가끔 몇몇 꽃들의 맛을 봐도 좋다. 그러나 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식용 꽃을 심기 전에 정원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지만 독이 있는 식물에 대한 공부부터 해야 한다. 독성에 있어서 화학 성분과 양이 중요한 두 가지 요소이다. 화학 성분에 관해 이야기 하자면, 알칼로이드(alkaloids), 글리코사이드(glycosides), 수지(resins), 알코올(alcohols), 페놀(phenols), 수산염(oxalates)와 같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식물은

집재적으로 유독성이 있는 식물이다. 그러나 그 식물의 유독성은 함유하고 있는 성분의 양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결국 많은 독성이 있는 식물들은 귀한 약재가 될 수도 있다. 그 산물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사용량인 것이다.

만약 당신의 정원에 꽃을 피우는 식물이 독성이 있는 식물의 목록에 있다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전까진 하나의 꽃잎이라도 절대로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먹을 수 있는 식물이나 독이 있는 식물 목록 중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식물이 있다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식물의 독성에 대한 주요 안내

1. 식물에 대해 확실히 조사를 한다. 버섯의 경우, 정확한 조사는 필수 사항이다.
2. 새들과 동물들에게 해롭지 않은 식물도 인간에게는 해로울 수 있다. 회색 다람쥐의 경우는 광대바섯속의 독바섯을 먹어도 안전하고 새들은 파뿌를 자국 시킬 수 있는 빨간 먹충나무 나무 열매를 정기적으로 많이 섭취한다.
3. 독성이 있는 식물들이 모든 기관에 반드시 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형 대황 줄기나 감자는 먹을 수 있지만 두 식물 모두 잎에는 독을 가지고 있어 먹을 수 없다.
4. 미국자리공(pokeweed)과 같은 몇몇 식물들은 그 해에 특정 기간에만 독을 가진다.
5. 일반적으로 독성이 없는 식물이라도 개인에 따라 밀과 우유와 같은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음식은 소량만 맛보도록 한다.
6. 특정 식물과에 속하는 대부분의 식물들이 독이 없다는 말이 그 과(科)에 모든 식물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
7. 물에 넣어 가열하거나 요리 할 경우 많은 독을 제거 할 수 있지만 전부는 아니다.
8. 만약 먹을 수 없는 꽃이라면 절대 장식용 꽃으로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9. 아이들에게 몇몇 꽃들은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꽃들도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준다.
10. 당신은 모르는 사이에 해를 입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식물이 복통을 일으키거나 심장을 빨리 뛰고 몸에 발진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독은 그 반응을 나타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한다. 어떤 독들은 절대 발견되지 않기도 한다. 예를 들어 몇몇 식물들은 암, 유산, 기형아 출생을 유발하는 화학 물질을 가지고 있다. 어떤 식물은 혈압을 상승시키거나 몸속의 칼슘을 배출하게 하고, 철을 축적하기도 한다.



은방울꽃



엘피니움



다기탈리스



루피너스



수국



수선



스위트피



클레마티스

독성 식물들과 독성이 있는 부분

아네모네 (*Anemone tuberosa*) : 모두
샤프란(*Crucis Colchicum autumnale*) : 모두
아마릴리스(*Amaryllis belladonna*) : 구근
극락조 (*Strelitzia reginae*) : 씨앗과 열매
철쭉수 (*Aesculus arguta* and *A. hippocastanum*) : 씨, 꽃, 잎
칼라둠(*Caladium bicolor*) : 모두
붉은 솜전대(*Lobelia cardinalis*) : 특히 구근 부분
클레마티스(*Clematis*) : 모두
흰독말풀(*Datura meteloides*) : 모두
다기탈리스(*Digitalis purpurea*) : 모두
가난초(*Gloriosa* 종들) : 모두
수국(*Hydrangea* 종들) : 모두

제스민(*Gelsemium sempervirens*) : 모두
란타나(*Lantana* 종들) : 모두
제비고래(*Delphinium* 종들) : 모두
은방울꽃 (*Convallaria majalis*) : 모두
루피너스(*Lupinus* 종들) : 모두
투구꽃 (*Aconium* 종들) : 모두
수선화(*Narcissus* 종들) : 특히 구근
협죽도(*Nerium oleander*) : 모두
포인세티아(*Euphorbia pulcherrima*) : 모두
만병초(로도덴드론) (*Rhododendron* 종들) : 모두
스타 오브 베들레헴(*SOB*) (*Ornithogalum* 종들) : 모두
스위트피 (*Lathyrus* 종들) : 모두
등나무 (*Wisteria floribunda* and *W. sinensis*) : 열매와 씨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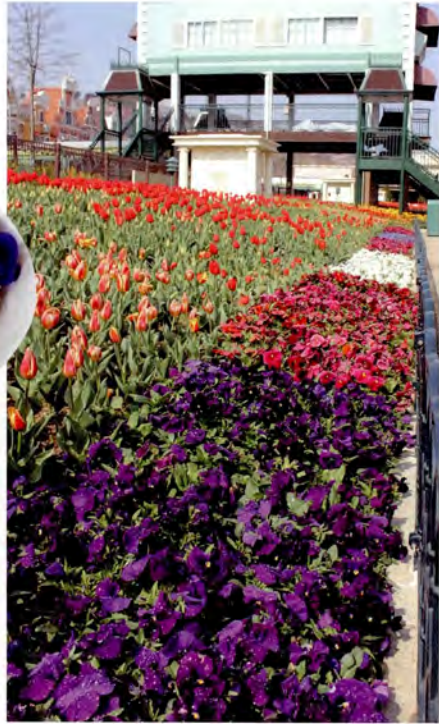
달콤한 식용 꽃

팬지

설탕에 절인 팬지꽃은 수세기 동안 사람들의 간식 이었는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서양에선 고급 식료품점에서 구할 수 있다.

이른 봄 제일 먼저 일년초 화단에 선보이는 것이 팬지이다. 오랜시간동안 우리에게 조경용으로 친숙한 초화류이다. 각 지자체의 봄 화단에는 어김없이 다양한 색상의 팬지가 우리를 맞이한다. 보라색, 노랑색, 흰색 등 다양한 색상의 많은 품종들을 쉽게 구할 수 있다.

팬지꽃은 강하면서 달콤한 꽃의 맛이 매우 많이 난다. 팬지꽃은 설탕절임에 사용하는 것도 좋고 디저트, 샐러드, 고명, 샌드위치에 그대로 사용해도 좋다. 얼음 큐브에 얼렸다가 음료를 담은 용기에 팬지꽃들을 띄워서 먹기도 한다. 설탕의 향, 식초의 색깔과 맛을 위해 사용할 수 있고 비빔밥의 재료로 이용하기도 한다.



우리씨드 완성품! 전시용, 행사용, 효과만점의 빅사이즈 화분 화 통



빅사이즈, 모델하우스, 지역축제 등
행사용으로 안정감있고
식재후 곧바로 완벽한 정원 조성!

- ◆ 우리꽃 빅사이즈 화분용 상품은 충분히 자란 정원용 식물을 소비자가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 ◆ 오랫동안 재배하여 큰 포기로 자란 식물로 화분 혹은 기타의 용기 등에 심겨져 이용 후 바로 그 최상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 이제 심고 오랜 기간 기다려야 제 모습을 보여주던 정원에서 심고 나면 곧 바로 아름다운 최상의 정원이 가능합니다.



우리꽃영농조합법인 구입문의 031.634.7990



클 편집실 사진 원주허브팜 제공

늘 꿈꾸던 휴식처 원주허브팜

식물박물관 원주허브팜은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에 위치해 있다. 현대인들의 마음에 휴식을 주는 정원을 꿈꾸며 설계되어져 2008년 5월 10일 개관하였다. 17,000㎡의 면적에 약 1,000 여종에 가까운 식물들이 피고 지고 자라는 강원도 최초 식물박물관이다(강원 제15호 박물관 등록). 식물이 가득한 정원을 산책하면서 아름다운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허브향이 가득한 뜰에서 몸과 마음에 안정을 줄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식물원에는 자작나무, 벚나무 가로수 돌레길과 허브뜰, 장미뜰, 수련뜰, 실내뜰 등의 정원이 가꾸어져 있으며 현재 연, 수련 등 수생식물, 수목, 허브 및 야생화식물 등 1,000여종이 자라고 있다. 13곳의 테마뜰, 6개의 연못, 3곳의 실내전시실이 있고 편의시설로는 카페와 식당, 허브샵이 있다.

허브뜰과 허브숲에는 백여종이 넘는 향기로운 허브들이 계절에 따라 피고지고 한다. 허브뜰에는 허브차, 음식, 약용, 아로마, 포푸리 등 허브의 쓰임새에 따라 나뉘어 심겨져 있고, 허브숲에는 향기로운 허브들이 어우러져 그 향과 그 모습만으로도 일상에서 쌓인 모든 피곤이 사라지게 해준다. 실내뜰에는 추운 겨울을 건널 수 없는 허브



원주허브팜 입구



실내뜰



수련뜰



허브뜰



장미뜰



허브족욕

들과 약간의 야생화를 볼 수 있다. 허브들의 잎사귀를 살짝 비벼 손에 묻어 나는 향을 맡아 보면 이것이 자연의 향으로 피로를 푸는 최고의 아로마테라피임을 직접 느낄 수 있다. 수막허브들은 음이온이 가득한 수막공법으로 만든 실내 허브 산책로로 여름엔 덥지 않고 겨울엔 춥지 않게 설계된 정원이다.

수련뜰은 60여종의 수련들이 연과 함께 아름다운 연못을 수놓고 있다. 수련만의 작고 양중맞은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지친 여름의 더위까지도 씻어지게 해준다. 연못을 따라 내려가다보면 돌다리와 부들이 어우러진 연못의 또다른 연못 풍경도 만나 볼 수 있다. 허브족욕뜰에서는 자연 건조한 무궁해 허브로 우려낸 물에 가볍게 족욕을 할 수 있다. 향긋한 허브향을 맡으면서 10분~15분 정도 조용히 명상하듯 발을 담그면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풀리는 곳이다. (매표소에서 허브족욕액을 구입하신분들은 족욕뜰에서 허브족욕을 할 수 있다.)

나무뜰은 작은 연못에 수련과 작은 분수, 마가목, 낙상홍, 주목, 메타스퀘어 등 여러종류의 나무들과 봄에 꽃이 너무 좋은 수사해당화가 있는 돌로 밤에는 호박마차의 빛으로 더욱 빛나는 멋진 뜰이다. 그리고 양, 달, 토끼, 공작 등 동물들이 가족처럼 함께 어우러져 가족이 사는 뜰이 있고 원주허브팜의 특별한 볼거리인 앵무새집에서는 앵무새 먹이주기 체험 등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식물박물관 원주허브팜은 나무, 수련, 야생화, 허브 등 식물을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가든(healing garden)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가을 자작나무



돌레길

정원을 꿈꾸는 사람들

김서진 우정아

들꽃의 향기가 머무는 뜰

김형극(63)김정수(62)부부가드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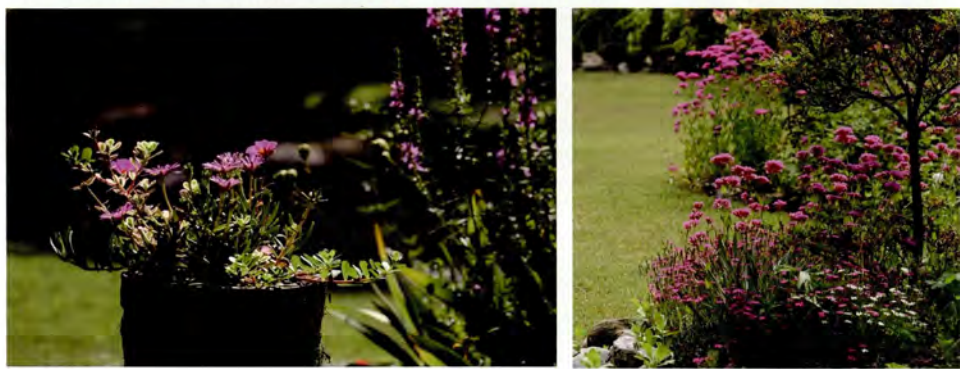
안성시 한적한 시골 마을 중심에 위치한 김형극님 정원은 600(약 2000m²)여 평에 감나무, 소나무 매실나무, 자두나무, 대추나무, 모과 나무, 산딸나무, 배롱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철쭉, 금송, 구상나무, 주목, 소사나무, 단풍나무 등의 목본류와 백일홍, 튼린, 후룩스, 으아리, 앵초, 용담, 구절초, 분꽃, 꿀풀, 달맞이꽃, 할미꽃, 옥잠화, 채송화, 비비추, 백한 등의 초본류, 바위솔, 와송 등과 같이 월동이 가능한 여러 가지 다육식물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고 있다. 20년 전 100년의 전통이 살아 있는 고가를 구입하여 리모델링하고, 마당에 심겨져 있던 100살 이상의 감나무를 보존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감나무의 위치를 그대로 살려서 조성한 화려하지 않지만 고향 같은 정겹고 편안한 느낌이 돋보이는 정원이다.

정원에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 길을 곡선으로 배치하고 전정과 후정의 공간을 분리하여 디자인 하고, 집 입구에서부터 시원스럽게 깔린 자유 곡선의 판석을 따라 양쪽으로 키 작은 초화류들이 자유롭게 식재되어 있고, 그 뒤로 관목들이 식재되어 있는 전정과 길을 따라 집을 지나면 시원스러운 잔디밭과 함께 돌로 만든 화단에 교목들이 식재되어 있는 후정이 나오는데, 후정의 대부분의 교목들은 이 곳에 원래 자리하고 있던 것들이라 수령이 오래된 것들이 많고, 수형도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 고풍스럽기까지 하다.



정원의 관리는 봄, 여름에는 하루에 2~3시간, 가을에는 하루에 1시간 정도 하며, 주로 식물 관리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특히 잔디는 봄, 여름 일주일에만 한 번 정도 깎아 주어야 잡초가 나지 않으며, 봄에 마사토로 침하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나무를 조성할 때 주의할 점은 키가 큰 것들은 큰 것들끼리, 작은 것은 작은 것들끼리 군락으로 조성하는 것이 보기에 좋으며, 식생도 좋고, 과감하게 정리, 전정을 해주는 것이 몇 년이 흐른 후에 보면 나무에게 더욱 이로운 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원래 있던 정원수를 제외하고는 조그만 묘목을 구입해 식재한 것이 지금까지 자란 것들이라 애착이 많지만, 필요 없는 나무를 과감하게 뽑아낼 수 있는 것이 시간을 줄이면서 좋은 정원을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새로 정원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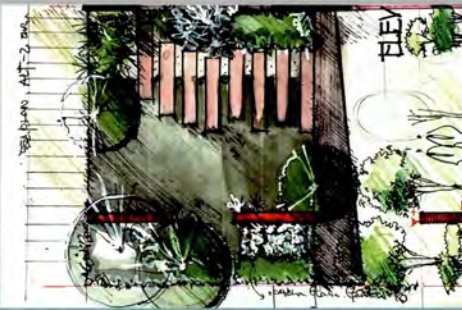
비료는 일반 퇴비를 묵혀서 사용하고 있으며, 과수가 많은 관계로 고압 분무기를 이용해 저독성 농약을 1년에 1~2번 정도 뿌려 주고 있다고 한다. 처음에 정원을 시작할 때는 느낌이 가는 대로 심고, 죽으면 다시 심고, 일이 두서가 없이 너무 많아 꽃을 보는 즐거움 보다 노동의 무게가 컸다고 한다. 차츰 요령이 생기면서 일년초, 이년초 보다는 숙근초 위주의 식재가 일이 쉽다는 것을 알았고, 무엇보다도 정원은 배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심는 것보다는 심을 곳의 관리 즉 밀 작업의 더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생물타리목으로 쓰고 있는 취통나무가 식생이 좋기는 하지만 손질을 자주 해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올해에는 피톤치드가 많은 측백나무로 바꾼다고 한다.



“하루의 시작을 상쾌하게 하고,
늘 자연에서 배움을 얻고,
정원은 부지런함이 생명이기에
땀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기면서,
땀 식히며 마시는 차 한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게 해 주는 정원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경기정원문화대상에서 수상을 할 정도로 실력자인 주인장이지만 배움을 실천하고, 배우는 모습이 정원과 함께 멋스러워 보인다.

가든스쿨-오로라라(Oro.LaLa)

정규/단과개강안내

단과과정: **이론 4강/실습(중.야)/4토(야)-8주/16강**

가든스케치 I(제한선) 실무과정

정교과정(상반기) **4회30일 4강/토요반(중강)-12주 16강**

가든(정원) 디자인 전문과정

가든스쿨_오로라라(Oro.LaLa)

도시정원.이연(www.kikigarden.com)/경기정원조경학원(www.gardenschool.kr)

031-466-0901

힐링원에

글 사진 김혜숙(신안산대학교 가든스쿨 교수 / 실내원에 및 힐링원에 저자)

오늘 아침 따스하고 부드러운 봄 햇살에 이끌려 창 밖을 내다보니, 문득 봄 기운 가득 담은 나만의 화단을 만들고 싶어 집니다. 정원의 신선한 공기와 따뜻한 햇볕 그리고 씨앗이 싹을 틔우는 모습은 지친 심신을 치유하는 자양분이 되어 줄 수 있겠지요.

Chapter 3. 봄을 부르는 나만의 화단 만들기

화단은 어떠한 토양을 좋아할까?

물빠짐이 잘되고 유기질이 풍부한 약산성 토양

통기성이나 배수력이 좋은 흙, 즉 흙 흙 입자에 틈이 많게 만들어야 한다. 딱딱한 흙은 갈아엎어주면 부석부석해 지고 부드러워지지만, 비를 맞으면 다시 딱딱해진다. 때문에 퇴비, 피트모스, 낙엽 등 유기물을 섞어주어 부드러운 상태가 오래 지속되도록 한다. 유기물은 흙 속에서 부식되는데, 이것이 흙의 작은 입자를 잡아당겨서 입단구조(때알구조)로 만들어 틈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조금씩 분해돼 식물의 양분이 되면서 본래의 단립구조(흙알구조)로 돌아간다. 따라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유기물을 공급해줘야 한다.

▶ 계절화단(seasonal bed)

이른 봄 수선화, 튤립, 히아신스 등 알뿌리 식물을 심고, 시들면 이를 제거 한 후 한해살이 꽃들을 계속해서 심는다. 화려한 꽃을 계속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계절에 맞는 식물을 계속하여 구입하여야 하므로 비경제적일 수 있다.



물망초, 비올라 등으로 꾸민 봄 화단



클레옌, 메리골드로 꾸민 여름 화단



여우꼬리, 그라스 등을 이용해 꾸민 가을 화단



꽃양배추를 이용한 겨울 화단

▶ 혼합화단(mixed bed)

사계절 보는 철쭉 등 관목과 다년생 꽃, 지피식물을 두루 섞어 심는 것으로, 매년 꽃을 감상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 초본식물화단(herbaceous border)

나무 없이 일년생이나 아생화, 다년생 꽃이나 풀로 꾸민 것이다.

◎ 화단에는 어떠한 꽃을 심어야 할까?

개화기간이 긴 한해살이 : 페튜니아, 임파넨스, 제라늄, 아게란them, 콜레우스, 한련화, 꽃베고니아, 메리골드, 맨드라미, 일일초, 백일홍, 천일홍

야생화 : 금강화, 기린초, 평의비름, 아스틸베, 동자꽃, 등글레, 매발톱꽃, 백리향, 비비추

지피식물 : 바위취, 돌나물, 맥문동, 사사, 수호초, 아주가, 리시마키아

관목 : 철쭉, 주목, 회양목, 사철나무, 화살나무, 매자나무, 조팝나무, 백당나무, 황금측백나무, 오색버드나무

◎ 아름다운 화단을 만드는 비법

1. 꽃 뿐만 아니라 여러 색상의 잎을 함께 식재한다.
흰색의 백요괴, 은하색의 램스이어 또는 설악초, 붉은색, 노란색, 검은빛을 띄는 콜레우스 등과 함께 심는다면 한층 더 풍성한 화단을 만들 수 있다.

2. 꽃의 색으로 원근감을 줄 수 있다.
화단을 넓게 보이기 위해서 차가운 색상의 청색, 보라색 계열의 꽃을 심는다.

3. 각기 개화기가 다른 식물을 골고루 심는다면 일년 내 다양한 화단을 느낄 수 있다.

예를 들면, 개화기가 빠른 구근류(봄)와 개화기가 늦은 천일홍(여름~가을) 등을 함께 심는다.

4. 유사색과 보색을 함께 식재한다.
유사색으로 조합하면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으며, (빨간색 맨드라미, 주황색 메리골드, 노란색 장미) 보색으로 조합하면 서로 강한 대비를 주어 화려한 느낌을 준다. (주황색의 앙귀비와 보라색의 수레국화)

5. 화단의 면적이 적을 때에는 복잡한 형태 보다는 단순한 형태, 여러 종류의 꽃보다는 3~4종류를 식재해야 통일감을 준다.

산만하지 않도록 배치하고 높낮이 다르게 하여 리듬감을 준다.

6. 직립형, 로제트형, 지피형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식재한다.
크고 위로 자라는 직립형(upright-shape)인 디기탈리스, 접시꽃, 라이타리스는 높이감을 주어 시선을 끈다. 부리에서 나오는 잎이 자사에서 방사형으로 퍼진 상태인 로제트형(rosette-shape)인 인개꽃, 꽃잔디는 둥근 모양이나 물결 모양의 흐름을 연출한다. 지피면을 기는 지피형(ground cover-shape)인 빈카마이너(vinca minor), 리시마키아는 직립형과 로제트형 사이에 식재하고 화단 가장자리에 배치한다.

계절	개화 시기	종류
봄 화단	3~5월	구근류- 무스카리, 히아신스, 백합, 크로커스, 수선화, 알리움 초화류- 물망초, 알리섬, 루피너스, 프리몰러, 팬지, 금어초, 금잔화, 꽃잔디, 데이지, 패랭이, 앙귀비, 복수초, 노루귀, 미나리아재비, 할미꽃, 매발톱꽃
여름 화단	6~8월	구근류- 칸나, 클라디올러스, 알리움, 백합 초화류- 속근베르나, 콜레우스, 옥잠화, 채송화, 일일초, 작약, 패튜니아, 한련화, 해바라기, 과꽃, 꽃베고니아, 임파넨스, 메리골드, 백일홍, 루드베키아, 가자니아, 천인국, 종이꽃
가을 화단	9~10월	구근류- 다알리아, 상사화, 꽃무릇 초화류- 접시꽃, 맨드라미, 포인세티아, 코스모스, 메리골드, 클레옌, 아게란them, 과꽃, 천일홍, 셀비아, 빈카,
겨울 화단	11~12월	꽃양배추, 갯쪽부쟁이, 털머위

나만의 화단 만들기



1. 풀이나 자갈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2. 땅을 30cm 깊이로 판다.

3. 완충 퇴비를 충분히 넣어준다. 완충 퇴비는 토양을 부드럽게 하고 보수성과 통기성을 높여 뿌리의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



4. 필요 유기질비료를 충분히 넣은 다음 배양토와 복합비료를 넣어 잘 섞어준다.



5. 꽃잎이 탐스러운 수국을 한쪽에 먼저 심는다.



6. 메리골드와 임파넨스(아프리카 봉선화)를 각각 분유에 심는다. 두 가지 이상의 꽃을 섞어 심는 것보다 종류별로 나눠 한데 모아 한줄 골음배 보인다.



7. 흙을 채우고 가볍게 눌러준다.
8. 물을 충분히 준다. 강하게 주면 화초 잎에 흙탕물이 튀거나 부리가 노출될 수 있다.
9. 꽃이 많이 필수록 월 2회 복합비를 준다. 시든 꽃은 즉시 잘라줘야 끝까지의 풍요리가 잘 피어나고 병충해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암석가든의 명소

라데나 골프클럽

이번호에서는 골프장내 전 홀에 걸쳐 ARI가든을 적재적소에 조성함으로써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는 물론 겨울까지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라데나 골프장의 ARI가든 현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글 사진 편집실

경춘군도를 따라 춘천의 입구에 자리잡은 라데나골프장은 1990년에 개장하였으며 30여개의 암석가든이 주변경관과 잘 조화를 이루며 고객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골프장이다. 라데나골프장의 암석가든은 ARI가든 기법으로 조성되어 졌다. ARI가든 (Alpine Rock Island)은 암석가든 특허공법(우리꽃연구소, 특허 제10-1036741호)으로 일반적인 암석가든과는 차별이 되는 우리자연의 선과 멋을 살려 새롭게 정원에 녹여낸 공법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보는 암석가든과는 차이가 있어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는 밝은 색의 돌과 둥근형태의 바위, 다양한 식물배치의 효과적 적용으로 연중 새롭고 아름다운 조경테마로 이미 자리잡아 가고 있다. ARI가든의 첫 작품은 2005년 4월에 시작되었다. 홀과 홀이 연결되는 곳, 그늘집 앞 등에 총 4곳에 시공하였으며 이를 시작으로 매년 늘려가 약 10년이 지난 지금은 클럽하우스 화단을 시작으로 그늘집 앞, 고객이 쉬어가는 장소로 쉬면서 시선이 주로 머무는 곳, 카트도로 사이에 교통섬식으로 만들어진 자리 등 30곳이 ARI가든으로 조성되어 전체적으로 통일되면서도 단조롭지 않은 경관을 보여준다. ARI가든에는 약 70여종의 식물과 돌이 과학적으



가을을 맞아 조팝류가 잘 정돈되었고 넓게 퍼진 눈향과 꽃잔디는 오랜 세월을 느끼게 해준다.



시선이 잘 보이는 장소에 깊게 조성한 ARI가든이 소나무와 잘 어울린다.



꽃백합이 ARI가든 사이에 혼성식재되어 아름다움을 더해준다

로 배치되어 고산의 독립된 섬과 같은 공간(Alpine Rock Island)을 새롭게 연출하여 봄부터 겨울까지도 아름다운 자연으로 태어나게 하고 있다. 특히 식물 하나하나의 특성이 잘 나타나 계절에 따른 고급스런 변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해준다. 특히 라데나골프장의 경우 ARI가든에 조형 소나무를 잘 어울리게 배치하였고 추식구근인 튤립과 춘식구근인 꽃백합을 사이사이에 식재하여 이른 봄과 여름에 고객들에게 더욱 아름다운 정원을 선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시공할 때 이용하는 부자재인 G커버와 그린키퍼는 보습작용을 하여 건조에 대한 내성이 강해지고 땅에 떨어져 있는 잡초의 종자발아를 억제시켜 잡초도 빈번하지 않아 관리가 수월해 지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시기별로 커팅작업만 잘 해준다면 관리가 용이한 식재공법이다. 라데나 골프장은 하나의 테마로 전 홀의 정원을 조성한 대표적인 골프장으로 이제는 ARI가든의 명소로 자리잡았고 그동안 설계회사 등 많은 곳에서 견학코스로 다녔가기도 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아름다운 정원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식재기법의 우수함과 아울러 코스관리 담당자의 세심한 관리가 어우러져 한 편의 뛰어난 작품이 탄생되고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다시 생각해본다.



고객들이 더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도록 정원가운데로 침목 보행로 설치



그늘집 앞 소화단에 조성된 ARI가든



2005년 조성된 ARI가든 첫 모습

|가든인 칼럼|

효과적인 식물생태학적 혼합이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한다.

글 사진 서준혁



꽃이 없더라도 식물전체를 감상할 수 있는 무늬종을 이용한다.



구역별로 계절별 테마를 설정하여 역새 등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가을에도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한다.

경관 연출에 있어 식물학적 디자인이라 함은 화색과 화기를 잘 고려하여 구조물과 경관 연출 공간에 알맞은 식물의 배치와 식재를 단순하게 해석하면 된다. 그러나 최근 혼합형 공간의 경우는 일반적인 스케치의 화색, 혹은 화기만을 고려해서는 매우 어려운 난제에 부딪히게 된다.

예를 들어 한정된 공간에 우리가 조경설계의 틀을 잡을 때 시간적이거나 공간적인 식물의 생태적 천이 혹은 자람을 이해하고 시기별로 화색과 식물본연의 품이 이어내는 세밀한 변화를 스케치를 통하여 표현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겨울에도 상록을 유지할 수 있는 품종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예는 가을 주제로 한다거나, 앞쪽 라인으로는 이른 봄 꽃을 피우는 종과 겨울의 상록성인 테마를 설정하고 이들을 큰 형태로 분류한다. 다음으로는 설정된 테마에 알맞은 식물군을 설정한다. 예를 들어 우측 뒷면에 가을 주제의 테마의 경우 대표적인 포인트 식물인 무늬역새, 혹은 아스타나 산국 등을 설정하고, 앞쪽라인 테마의 경우 꽃잔디, 상록성의 세덤, 상록잔디패랭이, 상록양지꽃 등을 설정한다.

셋째로는 이 설정된 식물의 화색과 화기 그리고 일반적인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스케치 한다.

넷째로는 이들 분리된 테마를 이어주는 기본 식물을 설정하여 전체적인 배치를 시도한다. 이는 각 테마별로 설정된 식물들이 특정구역적인, 혹은 계절적인 꽃을 피워 낸다면 어떤 구역은 그 테마가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 시기의 경우에는 경관적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계절별로 전체를 조화롭게 할 기본 식물을 설정하고 전체적인 배치 계획을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이 기본 식물의 특성으로는 꽃이 장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일정한 공간에 4등분으로 하여 각각의 4종의 식물을 심는 일반적인 식재의 경우는 스케치를 통한 표현은 매우 쉽다. 이것도 하나의 혼합식재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장소에 이 4종의 식물을 40등분으로 한 식재의 경우는 스케치하고 디자인의 개념으로 표현하기는 더욱 쉽지 않다. 특히 같은 공간에 이번에는 약 100종의 식물을 최소 400등분으로 디자인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 매우 어렵다. 특히 이용되는 100종의 식물 생태와 화기, 화색을 제대로 모르면 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방법이 있어 식물을 생태적으로 디자인할 것인가? 우선 공간의 도면을 놓고 각 계절별 테마를 설정한다. 예를 들면 우측 뒤

기개화할 것, 계절성이 뚜렷할 것, 무늬종으로 개화에 의한 관상이 아니라 식물체 전체를 감상할 수 있을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고 현재 좋은 품종으로는 상록잔디패랭이, 꽃잔디, 숙근꽃양귀비, 스텔라원추리, 코레우리, 매발톱, 하늘농담, 아스타, 개랑후룩스, 가우라, 큰평의비름, 은쑥, 비단너도부추, 무늬대사초, 숙근사루비아, 갈사초, 아이스맨스, 호스타 등이 매우 효과적이다.

다시 요약하면 첫째, 공간을 큰 부류의 테마를 설정 분할 한다. 둘째, 설정된 테마의 알맞은 식물군을 설정한다. 셋째, 설정된 식물군을 생태적인 배치를 한다. 넷째, 각 테마를 조화롭게 이어줄 기본식물을 설정하고 이도 생태적인 특성을 고려한 배치를 한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면 전체적인 윤곽과 식재패턴이 설계자의 의도와 일치하는지 시기별 테마별 스케치를 해보면 연중 변화 혹은 생태적 패턴적 윤곽이 나타나게 된다. 이때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개념은 조화이다.



식물의 화색, 화기, 초장, 절감 등을 고려하여 식재를 한다.

정원으로의 여행 13

글 사진 가든디자이너 서수현
현 가든디자이너스튜디오 대표
영국 예섹스 대학교 가든디자인 컨설턴트 및 조경 석사
천안연임대, 건국대 정원관련 강의 및 정원멘토로 활동



예술가와 함께 하는 정원

‘정원은 종합 예술이다.’ 식물을 이용하여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정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원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벤치, 퍼골라 등이 있고 꽃과 나무를 심을 수 있는 화분, 넝쿨식물이나 연약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게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구조물 등 정원 안의 소재 및 소품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식물의 색채, 질감, 형태를 이용하여 정원의 주제를 부각시키는데 여기에 예술품들이 함께 전시가 되면 그 정원의 이미지를 더욱더 잘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자연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하나의 갤러리처럼 느끼게 해주기도 한다.



Iford Manor 정원에서의 동상들의 모습. 정원 곳곳에 분위기에 어울리는 동상들을 배치하여 정원의 의미와 분위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Iford Manor 정원 안에 위치한 화랑식 정원. 중정 안에는 음악회를 열기 위해 준비 중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Iford Manor 식물로 정원의 대칭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였지만 같은 크기의 화분을 양쪽에 놓아 둥근 대칭의 공간이라는 것을 더욱 강조하게 된다.

르네상스 시대 유럽의 정원들을 보면 예술이 부흥하면서 정원도 함께 발전해 나간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정원에 조각상을 이용하여 정원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었다.

영국의 Iford Manor에서는 여러 조각상과 소품들을 이용하여 정원에 운치를 만들고 하나의 정원 갤러리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곳이었다.

넓은 공간을 방처럼 나누어 각각의 여러 테마로 정원을 꾸며 보는 이로 하여금 재미있는 이야기 보따리를 푸는 것 같은 기대감을 가져다 주었다. 또한 정원 끝자락에 위치한 화랑식 정원을 가진 음악당에서는 여름이 되면 ‘한 여름 밤의 꿈’ 등의 오페라, 제즈 및 여러 문화 행사가 열려 많은 사람들이 정원을 꾸준히 방문하게끔 하고 있다.



Iford Manor 공간을 나누는 벽의 윗부분까지도 넝쿨식물을 연상하게 만드는 모양으로 디자인 된 것을 보면 굉장히 적은 것 하나까지도 정원디자이너에서 섬세하게 다루어 주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정원디자이너들 중에 화가가 많았는데 대표적인 여류작가이자 정원 디자이너였던 거트루트 지킬은 나이가 들어 눈이 나빠져 더 이상 화가 일을 못하게 되자 정원을 가꾸기 시작한다. 대표적인 정원으로 Hestercombe garden이 있으며 그녀가 만든 정원은 마치 그림을 옮겨다 놓은 것처럼 아름다웠다. 한 폭의 그림을 그리듯이 식물을 이용하였으며 이러한 식재 스타일은 영국인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 상업적으로 똑같이 찍어내는 듯 만드는 디자인을 벗어나 그녀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아트 앤 크래프트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기도 하다.

정원은 이렇게 여러 예술이 모여 만들어지는 종합 예술이다. 정원 디자인 자체도 예술이긴 하지만 여러 예술의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진 정원은 보다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원도 어느 한 분야의 것이 아닌 협업의 장이 되어 질이 높은 정원이 많이 만들어 지면 정원도 한류를 꿈꿀 수 있지 않을까?



hestercombe gardens 이 곳의 식재 디자인을 맡았던 사람은 거트루트 지킬이라는 여류 화가이자 작가 겸 정원 디자이너였다. 식물의 색채와 질감, 형태를 이용하여 수채화를 그리듯 식물을 식재하였다.



PET병을 활용한 수경재배 (HYDRO CULTURE)



글 사진 우정아
가든 코디네이터 / KHDA(한국원예디자인협회)
항원화장



Material



마끈



PET병



코바늘



판정기



맥반석



무스카리(Muscari armenicum)



PET병을 알맞은 크기로 자른다.



판정기를 이용해서 그림처럼 규칙적으로 구멍을 내준다.



구멍을 이용해서 마끈으로 코바늘 뜨기를 해서 날카로운 부분을 없애고, 고리를 만들어 걸 수 있게 한다.



포트에서 무스카리를 분리하고 흙을 털어낸 후 물로 깨끗이 씻어낸다.



맥반석은 물로 여러 번 씻어 주고 용기에 1/2정도 담는다.



무스카리 뿌리를 잘 정리하고 넣은 뒤 물을 수염뿌리 부분만 닿을 정도로 넣어준다.

>> 관리법

수경재배 중에서도 역경재배인 이 방법은 물재배와 인공토양재배를 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공토양으로써의 맥반석은 식물의 지지대 역할과 동시에 물 정화 작용의 기능이 있어서 도움을 준다. 정화 기능에 도움은 주지만 완전한 정화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물을 갈아 주어야 한다. 무스카리는 알뿌리(구근식물)이므로 알뿌리 부분이 물에 닿으면 썩기 때문에 수염뿌리 부분만 물이 닿도록 수위를 조절해 주어야 하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강렬하면서도 화사한 이미지의 빨강과 차분하면서도 시원함과 상쾌한 이미지의 파랑이 섞이면서 신비롭고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옛날 사람들은 보라는 구하기 어려운 염료중에 하나라는 인식 때문에 귀한 색으로 알려져 왔다. 그래서 왕이나 귀족들의 색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보라색을 만들어 내기 위해 빨강과 파랑을 섞을 때, 빨강이 더 많이 들어가면 레드퍼플(Red-Purple)이 되고, 파랑이 더 많이 들어가면 블루퍼플(Blue-Purple)이 된다. 정원에서는 보라색이 지닌 신비로운 분위기와 고귀한 색상의 이미지로의 연출을 기대 할 수 있다. 비슷한 색상끼리 모아 그라데이션을 표현하기도 하고, 단독으로 사용해서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도 효과적인 보라색의 꽃들(Purple Flowers)을 정원에서 마음껏 연출해 보자.

오 도

플무학교생태농업전공부 교사 / 일본 惠泉女學園園藝生活學科에서 화단설계 전공, 전 여미지식물원, 천리포수목원 근무



구상나무

Abies koreana

소나무과·상록교목

▶ 5-6월 순 3월, 10월 ↓ 12m 이상



렘탄스아주가

Ayuga reptans

꿀풀과·속근초

▶ 4-6월 순 3월, 10월 ↓ 0.2m



클레마티스 '퍼얼 다주르'

Clematis 'Perle D'Azur'

미나리아재비과·낙엽활엽관목

▶ 6-8월 순 3월, 10월 ↓ 5m



배초향 '키에가비'

Agastache Acanthula Bicolor Salmon Rose—Kiegabi

꿀풀과·속근초

▶ 6-8월 순 3월, 10월 ↓ 50-75 cm



라티폴리아초롱꽃 '브란트우드'

Campanula latifolia Brantwood

조롱과·속근초

▶ 5-7월 순 3월, 10월 ↓ 1-1.2m



두란디클레티스

Clematis x durandii

미나리아재비과·낙엽활엽관목

▶ 6-8월 순 3월, 10월 ↓ 5m



데키피엔스현호색

Corydalis decipiens

현호색과·속근초

▶ 3-4월 순 3월, 10월 ↓ 0.3m



솔리다현호색

Corydalis solida subsp. incisa

현호색과·속근초

▶ 3-4월 순 3월, 10월 ↓ 0.3m



오레오퀼레우스크로커스

Crocus oreocrenus

붓꽃과·속근초

▶ 10월 순 3월, 10월 ↓ 0.1m



그랙스클라멘

Cyclamen graecum

영초과·속근초

▶ 10-12월 순 3월, 10월 ↓ 0.2m



엘라타닥틸로리자

Dactylorhiza elata

난초과·속근초

▶ 5-7월 순 3월, 10월 ↓ 0.5-1m



매지레움다프네

Daphne mezereum

팔꽃나무과·낙엽활엽관목

▶ 3-4월 순 3월, 10월 ↓ 2m



델피늄 '마이클 아레스'
Delphinium 'Michael Ayles'
 미나리아재비과·2년초
 ▶ 6~7월 수 4월 ↓ 1.5~2m



델피늄 '섬머필드 오베론'
Delphinium 'Summerfield Oberon'
 미나리아재비과·2년초
 ▶ 6~7월 수 4월 ↓ 1.5~2m



에프레이인디언앵초
Dodecatheon 'Jeffrey'
 앵초과·1년초
 ▶ 5~6월 수 3월, 10월 ↓ 45~60cm



프로케루스펜스테몬
Penstemon procerus var. brachyanthus
 현상과·속근초
 ▶ 5~8월 수 3월, 10월 ↓ 0.6m



로디취손이
Erythronium 'Purple King'
 쥐손이풀과·속근초
 ▶ 5~6월 수 3월, 10월 ↓ 20cm



얼레지 '퍼플 킹'
Erythronium 'Purple King'
 얼레지과·속근초
 ▶ 3~4월 수 3월, 10월 ↓ 0.3m



제라늄 '발레리나'
Geranium (Cinerum Group) 'Ballerina'
 쥐손이풀과·속근초
 ▶ 5~6월 수 3월, 10월 ↓ 0.1~0.5m



리비둠제라늄
Geranium phaeum var. lividum
 쥐손이풀과·속근초
 ▶ 5~6월 수 3월, 10월 ↓ 0.5~1m



실로스테몬제라늄
Geranium 'Psalostemon'
 쥐손이풀과·속근초
 ▶ 6~7월 수 3월, 10월 ↓ 0.5~1m



마그니피쿰제라늄
Geranium 'Magnificum'
 쥐손이풀과·속근초
 ▶ 5~6월 수 3월, 10월 ↓ 0.5~1 m



흰겨니치마
Helleborus 'Orientalis'
 백합과·속근초
 ▶ 3~4월 수 3월, 10월 ↓ 0.3m



아리스타타히포에스테스
Hypochaeris 'Aristata'
 쥐꼬리말초과·속근초
 ▶ 여름, 가을, 겨울 수 봄, 가을 ↓ 1.2~1.8m



우니플로로향기별꽃 '샬로테 비숍'
Iris 'Charlotte Bishop'
 백합과·속근초
 ▶ 3~4월 수 3월, 10월 ↓ 0.3m



그라미네아아아리리스
Iris 'Prudy'
 붓꽃과·속근초
 ▶ 5~6월 수 3월, 10월 ↓ 0.5m



아아리리스 '프루디'
Iris 'Prudy'
 붓꽃과·속근초
 ▶ 5~6월 수 3월, 10월 ↓ 0.5~1m



붓꽃
Iris 'Sanguinea'
 붓꽃과·속근초
 ▶ 5~6월 수 3월, 10월 ↓ 0.5~1m



클란데스티나개종콩
Lathyrus 'Cotton Candy'
 현상과·속근초
 ▶ 4~5월 수 3월, 10월 ↓ 10cm



락시플로루스연리초
Lathyrus 'Cotton Candy'
 콩과·속근초
 ▶ 5~6월 수 4월, 10월 ↓ 15~40cm



풀모나리아 '코튼 캔디'
Plumaria 'Cotton Candy'
 지치과·속근초
 ▶ 4~7월 수 3월, 10월 ↓ 0.5m



폴리오돈세네시오
Senecio 'Longwood Purple'
 국화과·속근초
 ▶ 5~7월 수 3월, 10월 ↓ 15~30 cm



앵초
Primula 'Sieboldii'
 앵초과·속근초
 ▶ 3~4월 수 3월, 10월 ↓ 0.5m



풀모나리아 '스모키 블루'
Pulmonaria 'Smoky Blue'
 지치과·속근초
 ▶ 4~7월 수 3월, 10월 ↓ 0.5m



아우그스티니만병초 '엘렉트라'
Rhododendron 'Eledra'
 진달래과·상록활엽관목
 ▶ 4~5월 수 3월, 10월 ↓ 1.8~2.4 m



크리스프슬라늄 '글래스네빈'
Salvia 'Glasnevin'
 가지과·속근초
 ▶ 6~8월 수 3월, 10월 ↓ 4~8 m



앵초 '미카도'
Primula 'Sieboldii' Mikado'
 앵초과·속근초
 ▶ 3~4월 수 3월, 10월 ↓ 0.5m



아우그스티니만병초
Rhododendron 'Augustini'
 진달래과·상록활엽관목
 ▶ 4~5월 수 3월, 10월 ↓ 1.8~2.4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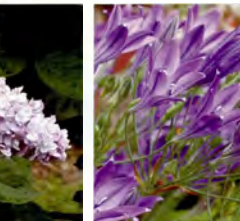
카우틀레이오아데스로스코이아 x 후메
Rosacea 'Caulisoides' x R. humana
 생강과·속근초
 ▶ 5~6월 수 3월, 10월 ↓ 0.8m



베르티칼라타살비아 '퍼플 레인'
Salvia 'Purple Rain'
 꿀풀과·속근초
 ▶ 5~7월 수 3월, 10월 ↓ 0.5~1m



라일락 '코라 브란트'
Syringa 'Cora Brant'
 팔꽃나무과·낙엽활엽관목
 ▶ 4~5월 수 3월, 10월 ↓ 3m



락사트리텔레이아 '코닌긴 파비올라'
Triteleia 'Koningin Fabiola'
 백합과(비파루과)·속근초
 ▶ 6~8월 수 3월, 10월 ↓ 0.1~0.5 m



여조연세꽃고비 '퍼플 레인'
Polemonium 'Yezoense' Purple Rain'
 꽃고비과·속근초
 ▶ 5~7월 수 3월, 10월 ↓ 0.6m



버베나 '릴라'
Verbena 'Lilla'
 마편초과·속근초
 ▶ 4~7월 수 3월, 10월 ↓ 0.5m



프로스트라타괴리풀
Veronica 'Prostrata'
 현상과·속근초
 ▶ 5~8월 수 3월, 10월 ↓ 0.5m



푸루테스켄스등나무 '롱우드 퍼플'
Wisteria 'Longwood Purple'
 콩과·낙엽활엽관목
 ▶ 6월 수 3월, 10월 ↓ 5m



정원식물 따라잡기 연재 ②

다년생 식물 Perennials

다년생은 적어도 2년은 지나야 성숙에 이르는 초본을 말한다. 품종을 잘 선택한다면 빠르게 멋진 형태를 갖추고 꽃과 잎의 질감과 색이 뛰어나 몇 년 안에 멋진 정원을 만들어낸다. 전형적인 숙근초 정원을 만들거나 관목 또는 일년생 화단에 혼합식재하여 뛰어난 화단을 만든다. 다양하게 이용하여 화분, 원도우박스 등에 식재하여 색다른 디스플레이를 할 수도 있다.

다년생이란?

정확하게 정의하자면 2년 이상 살며 한번 성숙에 이르면 매년 꽃을 피우는 식물이다. 보통 종자를 맺기 전에 매년 꽃대를 올리고 지상부는 가을에 죽지만 봄에 다시 새롭게 생장을 시작하는 식물을 일컫는다.

장식적인 특색

숙근초는 매우 넓은 범위의 식물군으로 다양한 식물이 포함되어 있어 식재 디자인에 맞추어 모양, 색, 질감, 향기, 키, 지피 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선택 할 수 있다.

조경해야 하는 지역에 미리 우점한 녹색식물의 뒷배경에 다양한 색의 식물들을 식재하여 대조적인 경관을 만들거나, 식물의 구조적인 형태를 돋보이게 이용할 수도 있다. 잎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빛나는 어두운 녹색 잎의 아칸서스(Acanthus), 다양한 잎의 옥잠(Hosta) 품종, 기타 무

다양한 정원식물의 기본적인 생리, 생태적인 특성을 알아보고 정원식물에 대한 기초정보를 독자여러분에게 소개하여 정원식물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글 사진 편집실



늑종 품종 등을 활용하면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다. 모양이 특이하거나 잎의 질감과 배열 등을 이용하여 눈을 사로잡는 효과를 만들 수도 있다. 꽃 또한 색, 크기, 형태 등이 매우 다양하여 조경에는 끝이 없는 다양성을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방꽃차례가 멋진 룬풀(Achillea), 키가 큰 아삭꽃차례가 눈에 띄는 루피너스(Lupinus) 등 잘 선택한 식물군을 이용하면 좋다. 원추리(Hemerocallis), 후룩스(Phlox), 배초향(Agastache)과 같은 숙근초들은 벌과 나비를 유혹하는 좋은 향 때문에 인기가 높다.

조경적용

전형적인 숙근초 화단은 19세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통 잔디밭으로 가려진 직사각형의 커다란 구획과 벽과 울타리 아래로 숙근초들이 키를 맞추어 배열된 양식이 주를 이룬다. 오늘날 숙근초 화단은 꽃은 물론이고 잎의 색깔과 질감까지 고려한 식재 계획아래 만들어진다. 화단에 미묘한 변화의 조화를 주는 시리즈 식물들을 한곳에 식재하거나 한 종류를 대단위로 심어 강한 인상을 주는 방법 등도 쓰인다.

숙근초, 관목, 구근, 덩굴식물, 일, 이년생의 혼합 화단은 일년 내내 경관을 감상하기에 아주 좋다. 숙근초와 화단의 중심이 되는 낙엽성, 상록성 관목을 주의 깊게 선택하여 식재의 균형을 잡고 숙근초와 관목이 성숙하여 정원에 정착할 때까지 일, 이년생로 빈자리를 채워준다. 봄에는 튤립, 아네모네 등과 같이 일찍 꽃이 피는 구근과 늦봄에 꽃을 피우는 종류를 함께 심는 것도 좋다.

숙근초 화단

숙근초는 조경적으로 매우 뛰어난 효과를 주지만 정원에서 각각의 생장조건을 맞추주는 것은 필수적이다. 야생화는 기후, 생활형, 토양의 타입 등이 제각각인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품종을 잘 선택하면 지역이 후미진 곳이면, 트인 곳이면, 햇볕이 강한 곳이면, 그늘진 곳이면 간에 또는 토양이 축축한 곳이면 건조한 곳이면 비옥한 곳이면 간에 주어진 조건에 맞추어 잘 기를 수 있다. 숙근초 화단에 들어갈 식물은 화단의 위치, 사면 방향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보통 봄과 가을에



잘 준비한 토양에 심는데주변의 잡초를 잘 제거해야 한다. 어린 식물은 정착할 때까지 물을 주기적으로 잘 주어야 한다. 성숙한 숙근초는 건조기가 길지 않은 이상 보통 물주기가 거의 필요가 없다. 균형 잡힌 완효성 비료를 일년에 한 번 표토에 시비한다. 보통 이른 봄 비온 후에 한다. 아스타(Aster), 델피니움(Delphinium), 후룩스(Phlox) 등과 같은 식물은 성숙한 개체 크기의 1/4 또는 1/3 정도 되었을 때, 약하게 올라오는 싹은 잘라준다. 강한 싹에서 크고 아름다운 꽃이 피기 때문이다. 개화기를 길게 하려면 죽은 꽃대도 주기적으로 잘라주어야 한다. 가을에 기저부에서 올라오는 싹을 자르고 시든 부분을 제거하는 정리 작업을 한다.

봄에 토양이 녹으면 유기물로 시비를 해준다. 화단에 있는 숙근초는 증식을 위해서 뿐 아니라 그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3-5년마다 분주를 해주어야 한다. 파내어 다시 심을 때는 나무와 관목 주변의 뿌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한다. 겨울철 화분과 식물의 식물체를 그대로 남겨두면 경관뿐 아니라 식물의 기저 부분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화분에 심는 숙근초는 양토질의 혼합토양을 쓰고 완효성 비료를 첨가한다. 양토의 무게가 안정성을 주지만 옥상정원이나 베란다정원에서 화분이 너무 무거워지면 옮기기 힘들므로 유의한다.

화분에 심었을 경우에는 생장기에 건조해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건조하고 뜨거운 날씨에는 매일 물을 주도록 한다. 화분이 클수록 물주기 주기가 길어진다. 멀칭은 수분을 보유하는데 도움이 된다. 숙근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식한다. 종자를 피종할 때는 많은 수의 식물체가 필요할 때 한다. 품종들은 종자로부터 얻을 수 없으므로 분주와 꺾꽂이를 해주어야 한다.



- 가든인 생생정보 -

생육이 강건하고 청원용으로 안성맞춤 붓꽃

붓꽃을 이용한 민간요법

붓꽃의 종자를 마린자(馬蔴子), 꽃을 마린화(馬蔴花), 뿌리를 마린근(馬蔴根)이라 하여 약용으로 사용한다. 다만 등심붓꽃은 약용하지 않는다.



마린근(馬蔴根)

생약명으로 붓꽃의 뿌리줄기는 마린근(馬蔴根)이라하며 청혈, 해독 작용, 해열, 소화불량, 치질, 타박상, 황달, 이질, 음, 설사를 낫게하는 효능이 있다.

늦여름에 잎이 누렇게 말라 갈 즙을 뿌리줄기를 채취하여 잘 말린 후 종이 봉지에 넣어 통풍이 잘 되도록 보관한다. 이것을 10~15g씩 물 0.5리터에 달여 1일 3회로 나누어 복용하면 효과가 있다. 단 백설방울을 넣으면 효력이 없어진다.

마린자(馬蔴子)

8~9월 과실 성숙기에 과수를 끊어내어 햇볕에 말려 종자만을 골라 다시 햇볕에 말린다. 그것을 마린자(馬蔴子) 혹은 여실이라 하여 내 복용으로 달이거나 외용으로 짓찧어서 환부에 붙이면 지혈제, 파상풍, 폐렴, 촌충, 편도선염, 백일해(급성 기도감염증), 천식 등에 효능이 있다.

마린화(馬蔴花)

4월 개화 후 맑은 날을 가려 꽃을 따서 햇볕에 말리거나 또는 그늘에 말린다. 변색을 막기 위해서는 이슬이 묻지 않게하고 곰팡이를 방지하며 건조해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저장한다. 그것을 약 3~6g 달여서 복용한다. 인후염, 지혈의 효능이 있으며 소변을 잘보게 하여 임질 증상에 효력을 나타낸다.

천식, 기침가래, 신경쇠약, 폐암 항암작용에 탁월한

개미취

개미취는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로 7~10월 경에 개화하며 꽃색은 자주색을 띤다.

다른 이름으로는 자원, 소판, 협판채, 산백채, 들개미취, 애기개미취 등으로 부르며,



생약명으로는 자원(紫苑), 자원, 자영(紫英)으로 부른다. 개미취의 꽃말은 이별, 기억, 먼 곳의 벗을 그리워하다가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깨끗한 이미지를 주는 아름다운 들꽃이다.

봄철에는 어린 잎을 따서 말려 나물로 먹기도 하며, 자원(紫苑)은 봄에 캔 개미취의 뿌리를 햇볕에 말린 것으로 한방과 민간에선 풀 전체를 토혈, 천식, 폐결핵성 기침, 만성기관지염, 이뇨 등에 사용한다. 키가 커서 다른 꽃 뒤에 심으면 아름다운 꽃을 감상 할 수 있어 좋으며 햇빛이 잘 드는 계곡주변이나 깊은 산속의 풀밭 또는 습한 곳에서 도 잘 자란다.

활용법

- 취나물의 하나로서 흔히 채식되고 있으며 이른 봄에 개미취의 부드러운 잎은 주로 나물로 만들어 식용을 하는데 많이 먹으면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윤기가 나며 아름다워진다고 한다.
- 여성들 중에 변비와 생리통이 경해 있다면 개미취를 달여서 먹거나 나물로 꾸준히 먹어도 좋다. 한겨울에 된장으로 나물국을 만들어 먹어도 좋으며 변통을 용이하게 해주어 변비개선에도 좋다.
- 감기로 인해서 목이 아프고 입안이 마르는 증상이 있을 때에는 한여름을 응달에서 잘 건조한 개미취의 꽃을 약한 불로 달여서 음용수로 사용하면 매우 좋고 예전에는 폐렴에도 자주 사용하던 약초이다.
- 개미취의 전초는 살충효과가 있어 옛날에는 잘게 썰어서 외양간, 돼지구리, 화장실 등에 넣어서 살충제로 쓰기도 하였다.

아름다움의 최고봉 꽃양귀비

재배관리법

1. 추파용종자로 11월까지 파종해준다.
단, 시기를 늦췄을 경우 이듬해 봄 3월 이전에는 파종해 주어야 한다.
2. 파종 후 흙을 덮지 말고 부린 씨를 살짝 눌러주면 된다.
3. 비옥하고 물빠짐이 좋은 것이어야 효과적이다.
4. 4월 중순경에 일정한 간격 (30~40cm)으로 솎아주면 좋다.
5. 봄, 연한 잎으로 씹이나 결절을 해먹을 수 있다.
6. 생육이 약하지만 복합비료를 부려준다.
7. 축제를 하기 위한 대면적 재배의 경우 품종과 토양, 자연환경에 따라 생육의 차이가 매우 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비타민과 무기질이 듬뿍~

싱싱한 쌈채소

쌈채소에는 비타민C, 비타민A 등의 비타민과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의 무기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적당히 섭취할 경우 생활에 활력을 주고 생리대사 조절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별도의 가열, 조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충분한 세척만으로 섭취가 가능하다. 이렇게 먹는 쌈채소는 영양소 파괴없이 채소에 있는 영양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을뿐더러 자연의 살아있는 싱싱한 맛을 먹는 즐거움도 있다.



GARDEN & BOOK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52주

저자 : Marica Zotino

일상에 지친 나를 '쓰담쓰담' 해줄 다이어리 & 컬러링북



저자소개

저자 Marica Zottino는 그래픽 디자인과 트랜드 예측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 프리랜서이다. 호기심이 생긋는 그녀는 늘 새로운 트랜드와 아이디어를 추구하며, 예술이러면 어떤 형태든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

아날로그적 감성을 살릴 수 있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 스케줄을 적을 수 있는 다이어리와 아름다운 일러스트를 색색의 펜으로 칠할 수 있는 컬러링북을 한 권에 담았다. 이 책은 사람들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자연적인 이미지인 꽃, 나무, 풀, 들판 등을 주제로 한 일러스트를 담고 있다. 색칠을 하다 보면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고 몰입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며, 복잡한 머릿속은 어느덧 아름다운 정원처럼 평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손맛에 빠져 있다. 디지털 문명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손으로 만들고, 쓰고, 색칠하는 감성능력이 점점 더 그림다. 아날로그적 감성을 살릴 수 있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 스케줄을 적을 수 있는 만년 다이어리(날짜가 기입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원하는 기간 동안 사용 가능)와 아름다운 일러스트를 색색의 펜으로 칠할 수 있는 컬러링북을 한 권에 담았다.

이 책은 사람들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자연적인 이미지인 꽃, 나무, 풀, 들판 등을 주제로 한 일러스트를 담고 있다. 색칠을 하다 보면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고 몰입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며, 복잡한 머릿속은 어느덧 아름다운 정원처럼 평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하루, 일주일, 일 년 52주 동안 계획한 스케줄들을 실행하고, 간단한 것부터 세밀한 일러스트까지 아름다운 작품을 완성해가면서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색다른 힐링 테라피가 될 것이다.

작가들의 정원

누구나 한 번쯤, 글을 쓰고 정원을 가꾸는 삶을 꿈꾼다

저자 : 재키 베넷

정원에서는 멋진 일들이 벌어진다. 소설에서도, 일상에서도.

제인 오스틴에게 숲과 정원이 없었더라면 소설 속 주인공들은 어디서 걷고 말했을까. 베아트릭스 포터의 장난꾸러기 동물들은 어디서 뛰어다니고, 워즈워스는 무엇에 대한 추억을 노래했을까. 애거서 크리스티, 찰스 디킨스는 소설을 구상할 때 가장 먼저 정원으로 달려가곤 했다.

꽃과 채소, 나무와 오솔길 그리고 들판과 시냇물은 우리를 비우기도 하고 채우기도 한다.

작가들은 때론 직접 흙을 파고 가지를 치고 돌담을 쌓으며 정원과 자연에서 위로받고 기쁨을 찾고 작품의 영감을 얻었다. 이 책은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영국 작가 20명의 집과 정원과 텃밭, 작품의 배경이 된 숲과 들판과 산책길로 우리를 안내한다. 작가들이 나고 자라고 생활한 자연환경과 정원이 이들의 삶과 문학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본다. 또한 작가들이 거주했던 장소, 작품의 배경 등 아름답고도 의미가 깊은 풍경 사진이 풍부하게 실려 있어 시각적으로도 그곳을 여행하는 듯 생생한 즐거움을 준다. 채마밭에서 채소를 수확하고 과수원에서 열매를 따고 나무를 심고 화단을 배열하고, 그러다 정원 한 구석의 오두막 집필실에서 글쓰기에 몰두하고, 오솔길과 호숫가를 산책하며 작품을 구상하는 작가들의 모습은 숨 가쁜 일상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휘젓고 묘하게 평화시킨다. 작가가 거주한 공간을 통해 작가의 삶과 작품을 일목요연하게 펼쳐놓고 있어 영국 유수의 작가와 작품에 관한 내용을 한 권으로 훑어보고 싶은 사람에게도 권할 만하다. 작가의 인생 이야기, 작품에 얽힌 뒷얘기, 주변 인물, 서양 예술계 전반의 이슈 등 흙 속에서 아무진 감지없이 줄줄이 떨어 나오듯 이야기와 정보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재미도 쏠쏠하다. 우연히 확장될 수 있는 실마리로 가득 찬 책이다.



저자소개

저자 재키 베넷(Jackie Bennett)은 〈가든 디자인 저널〉(영글리시 가든 매거진) 〈가드닝 위드 더 내셔널 트러스트〉 등의 편집자였고, 전업 작가가 되기 전에는 조경 및 자연사 관련 TV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도 했다. 1990년에 BBC 와일드라이프 매거진 자연 부문 저술상을 수상했고, 자신의 정원에 관해 쓴 시리즈 가든 미디어 협회 2009년 올해의 가든 칼럼으로 선정되었다. 저서로 〈이달의 와일드라이프 가든The Wildlife Garden by Month〉(코티지 가든Cottage Garden) 〈와일드 아바웃 더 가든Wild About the Garden〉 등이 있다. 정원 디자인 및 조경 역사를 공부해 온 저자는 가든 디자인에 협회와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식물원 등에서 저술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다.

10% ~20% OFF

인하

정기구독 안내

[구입처]

오프라인 서점
교보문고

광화문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영등포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로 15 타임스퀘어 멀티플렉스 2층
강남점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교보타워 지하1, 2층
목동점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지하 1층
잠실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롯데 캐슬프라자 지하1층
인천점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38 이도타워 지하 1층
부천점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연동로 1 부천역사 7층
안양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11 CGV 1번가 5.6층
분당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 분당퍼스트타워 지하1층
천안점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3층
대구점 :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586 교보생명빌딩 지하1층
센텀시티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35 신세계 센텀시티 5층
부산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58 교보생명빌딩 지하 1층
창원역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4 마이우스 빌딩 지하1층
영풍문고 잠실점, 영광도서(부산), 남포문고(부산), 녹산문고(수원)

온라인 인터넷

교보문고 www.kyobobook.co.kr 알라딘 www.aladin.co.kr

[입금방법]

카드 결제 및 문의사항 : 031-712-7009

무통장입금

예금주 : 우리꽃영농조합법인

농협 355-0030-2359-03

▶ 입금 후 반드시 주소와 성명을 알려주셔야 배송가능합니다.

[정기구독방법]

1년 16.6% 할인 (100,000원)

2년 20% 할인 (192,000원)

Gardenin

발행처 : 우리꽃영농조합법인
발행인 : 김영채 경희대학교 명예 교수 / 농학박사
박공영 우리씨드(Uniseed)그룹 대표 이학박사
고문 : 이순영 前 협평 농업기술센터 소장
편집인 : 서준혁
주소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
전화 : 031-712-7009
팩스 : 031-634-7991
전문위원 : 김광두 농학박사 / 前상명대학교 겸임교수
김광춘 대림원예종묘(주)대표
김귀순 (주)그린페이퍼 대표
박신애 간국대 생명환경과학대 교수
안완식 농학 박사 씨드림대표
우정아 가든 코디네이터 한국원예디자인협회 창원회장
유봉수 숲개그늘 대표
윤정식 대한아로마테라피학회 회장
윤광섭 농학박사 / 삼육대학교 명예 교수
이정식 농학박사 / 前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
이종석 농학박사 / 서울여자대학교 명예 교수
최주건 농학박사

디자인&인쇄 : 워킹카우42 Workingcow42@naver.com
010 7399 5488



국내최초

허브&아로마테라피 교육체험센터 생활의 향기



Since 2006

<주요사업>

허브힐링 건강세미나(기업체, 단체)

- 허브향기로 스트레스를 싸~악 날려버리자!

허브힐링 인성·진로 교육(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 허브힐링을 통한 마음치유와 건강하고 목표가 있는 삶!

- 허브 조향사 진로 교육

허브 & 아로마 교육 체험학습

- 허브비누

- 허브향수(안티스트레스, 집중력 등)

- 허브스프레이(호흡기, 근육 등)

- 아토피 연고, 호흡기 연고, 천연 림밤 등

- 천연 에센스, 스킨, 로션 등 허브 화장품

직영 매장

보광 휘닉스파크 블루룸 1층
- 허브체험센터, 아로마 캔들하우스

상호 협력기관

대한아로마테라피학회(www.aromatherapy.or.kr)
- 아로마테라피 실용전문교육기관으로 아로마 자격증 발급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죽엽산로 493(고모리 183)
Tel.031-544-7084 Fax.031-544-7086
www.aromainlife.com

Nice to  you!

가든엔씨앗

정원용 고급종자 100선



유럽 직수입 다양한 고급품종!

다년초, 1,2년초, 허브, 덩굴식물 등 다양한 종자를 선보입니다.



우리꽃연구소
URISEED LAB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전상미로 924번길
Tel. 031-712-7009 Fax. 031-634-7991